

EBS 300제 신문

[001-0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언제 이런 곳에 왔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분명 경희입에 틀림없다. 거드랑이에서 체온계를 빼려는 손을 꼭 잡았다. 손가락이 차다. 경희의 손은 이렇게 냉랭한 적이 없었다. 따뜻한 지난날의 감촉이 포근히 되살아온다. 눈을 떴다. 그러나 아직도 머리는 안개가 서린 듯 보이나 흐리멍덩하다.

“정신이 드나봐…….”

경희의 음성이다. ○이렇게 싸늘하지는 않았다. 간호원이다. 새하얀 옷이 소복 같은 거러감을 가져온다. 꿈인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 보아도 꿈은 아닌 성실하다. 내 숨소리가 확실히 거세게 들려온다. 틀림없이 심장이 뛰고 있다.

총소리가— 그것도 다섯 방의 총소리가 거의 같은 순간에 울리던 그 총소리가— 아직도 고막에 달라붙어 있다. B가 맞은 건지 내가 맞은 건지 분간이 안 간 대로 그 시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B가 거꾸러진 건지 내가 거꾸러진 건지 그것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승부는 났다. 그러나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알 길이 없다. 귀를 만져 본다. 찢어졌던 귓바퀴를 꿰맨 상흔(傷痕)이 사마귀처럼 두툼하다. 그때는 내가 졌다. 아니 계속해서 내가 지고만 있었다. 지금도 어쩌면 내가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곰이라는 별명을 가진 뚱뚱한 선생이었다. 좀 심술궂은 성품이다. 그것이 수업시간에도 곧잘 나타났다. ○아이들의 귀를 잡아끌거나 뺨을 꼬집어 당기는 것쯤은 시간마다 있는 일이었다. 추석 다음날이었나 보다. 그 날은 나도 B도 숙제를 안 해 갖기에 꾸중을 듣고 난 뒤였다. 설명 한 마디에 ‘엎’ 소리를 거의 하나씩 쉬는 그의 버릇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곰의 설명을 듣는 등 마는 등. 공책에다 ‘엎’ 소리 날 때마다 연필로 점을 하나씩 찍어갔다. 열흔 아홉? 여든? 여든 하나……하학 종이 거의 울릴 것만 같다. 나는 늘 하는 버릇대로 백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조바심으로 표를 하고 있었고, 나와 한 책상에 앉아 있는 B는 거기에만 정신이 쏠려서 한눈을 팔고 있었다. 아마도 곰의 시선은 우리 둘 책상만을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

아흔 아홉…… 하학 종이 울렸다. 아쉬움을 삼키면서 머리를 들었다. 그때다. ‘엎!’ , ‘백!’ 하고 내가 혼자 버까리는 순간 B가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어?’

고함소리에 정신이 바짝 차려졌다.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곰을 보면서 탁처울 벌을 각오했다. 내 공책에서 눈을 뗀 곰은 둘 다 일으켜 세웠다.

‘서로 뺨을 때려!’

몇 번 외쳐야 아무 반응도 없다. 이 험악한 공기 속에서도 나는 흘끗 유리창 밑 줄에 앉아 있는 경희 쪽으로 눈길을 훑었다. 경희는 내가 당하거나 하는 것처럼 불안한 표정으로 이쪽을 지키고 있다. 다른 애들의 눈소리도 그러했겠지만 그때의 내 눈에는 경희의 표정밖에 보이지 않았다. <중략>

안전 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산골짜기의 정적 속에 음산하다.

○나는 무심중 귓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호도껍질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서 없이 한 덩어리로 몽겨져 엄습해 온다. B와, 경희와, 곰과, 공기총과, 견갑을

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다.

“겨누어. 총!”

구렁에 맞추어 시수는 일제히 개머리관을 어깨에 대고 B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겨누었다.

순간 나는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기늩쇠 구멍으로 내어다 보이는 B의 심장 위에 어린다.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 본다.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원의 위기에 선 B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고…… 방아쇠의 차디찬 감촉이 인지(人指)의 안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네 시수의 탄환은 분명 저 B의 가슴의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

‘쏘아!’

구렁이 끝나기가 비쁘게 일제히 ‘뽕!’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B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의 대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방아쇠를 힘껏 당겼다. 총신이 위로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꼈을 뿐이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때는 이미 B는 다른 네 방의 탄환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돼 가는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의 땀을 닦아 내고 있다. B와 나란히! 아니, B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몽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 전광용, ‘시수(射手)’

[001-002] 위의 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다음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 B와 ‘나’는 한 학급의 급우로 막역한 친구이다.
- ㉡ ‘나’와 B는 모두 경희를 좋아하게 된다. 나는 B에게 경희와의 약혼의 뜻을 솔직히 말하고 B의 양보를 기대하지만 그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 ㉢ ‘나’와 B는 공기총 싸움을 했지만, ‘나’의 귓볼에는 공기총 탄환의 자국이 남고 결국 진다.
- ㉣ 6.25 전쟁으로 인해 모두 흩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전속되어 온 부대에서 B를 만나게 된다. B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 B의 옆에서는 그의 아내가 된 경희가 서 있었다.
- ㉤ B는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나’는 B의 구명 운동을 하게 되나 결국은 사형 집행 시수로 지명된다.
- ㉥ ‘쏘아!’라는 구렁에 시수들의 총소리가 났다.
- ㉦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EBS 300제 산문

<보기>는 위 글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희'는 '나'와 B의 대립과 갈등을 주변에서 은근히 조정하고 있다.
- ② '나'는 순간적인 방심에 의해 B를 이길 수 있는 좋은 기회조차 살리지 못하고 있다.
- ③ 'B'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시점까지 줄곧 '나'보다 힘이 센 존재로 군림해왔다.
- ④ '나'와 'B'사이의 대결은 둘 사이의 갈등보다도 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 ⑤ 시대와 역사는 'B'의 인생 가치관을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다.

④
002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에서 현재로 차차 내려오며(㉠→㉢→㉤),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현실 속의 의식 세계(㉡, ㉢)와 의식 상실 후의 세계(㉤)가 넘나들고 있다.
- ③ 이질적으로 보이던 두 가지 사건(㉢, ㉤)이 인과 관계로 밝혀진다.
- ④ 최근의 일(㉤)이 먼저 서술되고, 이어 과거의 사건들이 소급되며(㉢→㉠) 서술되고 있다.
- ⑤ 충격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내적 독백으로 서술되고 있다.

④
003

위 글의 제목을 바꾸어 쓰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중 가장 적절한 견해를 제시한 학생은?

- ① 민경 : 대결 상황 속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라고 붙이면 좋겠어.
- ② 승우 : '충동과 살의'라는 제목이 어때?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 놓인다면 누구나 상대를 죽이고 자신이 살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다고 생각해.
- ③ 진호 : 주인공의 경우 한쪽에게는 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한 쪽에게는 대항적인 태도를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사랑하며 반항하며'라고 제목이 좋다고 생각해.
- ④ 보영 : 이상하리만큼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불가피한 대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고 봐. 그래서 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대결 의식'이란 제목이 좋다고 생각해.
- ⑤ 수철 :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대결하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정을 택할 것인가가 고민이잖아? 따라서 나는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제목을 정했으면 해.

④
004

㉠~㉣에 담겨 있는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추리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경희화의 옛 추억에 젖어 있다가 이내 현재의 대조적인 상황에 실망하고 있다.
- ② ㉡ : 그저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였던 사건으로 대상 인물에 대해 특별히 비판적이지는 않다.
- ③ ㉢ : 육체적인 상처를 통해 정신적으로 패배했던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 ④ ㉣ :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한 상대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⑤ ㉤ : 패배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갈등하고 있다.

005

흠뻑다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루 주자가 2루를 흠뻑 보았다.
- ② 손수건으로 눈물을 흠뻑다.
- ③ 눈이나 발을 맨 뒤에 생긴 풀을 흠뻑다.
- ④ 그는 긴장을 했는지 연방 식은땀을 흠뻑 내었다.
- ⑤ 그 도둑은 흠뻑 물건을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①

[006-010]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선비'는 용연 마을의 지주인 정덕호의 집에서 몸종으로 지내다가 집을 도망쳐 나온 뒤, 자기처럼 덕호에게 당하고 먼저 서울로 간 '간난이'를 찾아간다. 선비는 그녀의 도움으로 인천의 방직 공장에 취직하여 새 삶을 시작하지만, 이 공장은 수많은 여공들을 기숙사에 수용하여 갖은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한편, 선비를 좋아하는 고향 청년인 '첫째'는 덕호에게 반항하다가 땅마저 빼앗겨 고향을 등지고 인천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 운동을 벌인다.

잡생각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그도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곤 하였다. 그는 요새 신철이를 몹시 생각하였다. 철수를 통하여 신철의 소식을 가끔 들으나 언제나 시원치 않은 소식이었다. 어서 빨리 나가서 다시 손에 손을 마주잡고 전날과 같이 일을 했으면 좋을 터인데..... 여기까지 생각한 첫째는 월미도를 향하여 가던 긴 행렬을 다시금 눈과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선비의 놀라던 모양이 문득 생각난다. 참말 선비였던가? 그가 참말 선비라면 어느 때든지 만나 볼 것 같았다. 그때 그는 어젯밤 철수에게로 나왔을 때 동방적공장의 보고를 듣고 싶은 생각이 부쩍 났다. 그리고 속이 달아 못 견디겠으므로 밖으로 나왔다.

그가 철수의 집까지 오니, 마침 철수는 집에 있었다. 철수는 소리를 낮추어,

“서울서 어떤 동무 편에 신철의 소식을 알았소.....”

첫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뚫었다.

“불기소가 되어서 나왔대우..... 이유는 사상 전환이라우.”

“전환.....?”

첫째도 무의식간에 그의 말을 받고 나서 이 말을 믿어야 할까? 믿

EBS 300제 산문

지 않아야 옳을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힘이 그의 가슴을 짝 채우고 말았다. 출소는 첫째의 낙심하는 모양을 살피고,

“동무! 신철이가 전향했다는 것이 그리 놀랄 것이 아닙니다. 소위 지식계급이란 그렇지요. 신철이는 나오자 M국에 취직하고 더욱 돈 많은 계집을 얻고 했대우.”

취직하고…… 돈 많은 계집을 얻구……? 이 새로운 말에 첫째는 무엇인가 번개같이 그의 머리를 찢어 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라고 꼭 집어대어 출수와 같이 술술 지껄일 수는 없었다.

그때 밖에서 신발 소리가 벼락치듯 나더니 문이 확 열렸다.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뒷문 편으로 다가서며 바라보았다.

간난이었다. 철수는 나무라듯이 간난이를 보았다. 간난이는 숨이 차서 한참이나 머뭇머뭇하다가,

“지금…… 곧 외주셔야 하겠수, 네? 빨리…….”

간난이는 겨우 이렇게 말하고 홑 돌아서 나가 버렸다. 그들의 놀란 가슴은 아직도 벌렁거린다. 첫째는 간난이를 바라볼 때, 몹시 낮이 익어 보이는데도 얼핏 누구인지는 생각나지 않았다. 철수는 첫째를 돌아보았다.

“같이 갑시다…… 아마 죽어 가는 모양이요!”

첫째는 철수의 눈치를 살피며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철수는 급하게 걸으며 앞뒤를 훑금훑금 돌아본 후에 가만히 말을 꺼냈다.

“어젯밤 대동방적공장에서 여성 동무 하나가 병으로 인하여 해고되었는데…….”

그때 자전거가 확 지나치자, 물고기 비란내가 훑 끼친다. 첫째는 물고기 장수를 눈길에 보고 철수의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풀이하여 보았다. 그때 그는 가슴이 묵직함을 느꼈다.

“병인죽은 폐병인데…… 후!”

철수는 그 조그만 눈을 쪽 찢어지게 뜨며 입술을 꼭 다물어 보인다. 그때 첫째는 멀리 수평 위로 보이는 대동방적공장의 연돌(煙突)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시커먼 연기를 풀풀 토한다. 첫째는 선비도 그러한 병에나 걸리지 않았는지? 하였다.

그들이 가난이 잡가지 왔을 때 간난이는 맞받아 나왔다. 그리고 입을 실룩거리며 무슨 말을 하거나 하나 음성이 탁 갈리어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벌써 눈치를 채고 나는 듯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철수는 병자의 걸음으로 와서 들여다보며 흔들었다.

“동무! 정신 좀 차리우, 동무!”

병자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었으며 얼굴이 파랗게 되었다. 철수는 후 하고 한숨을 쉬고 첫째를 돌아보았다. 가슴을 졸이고 섰던 첫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들여다보는 순간,

“선비!”

그도 모르게 그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우뚝 섰다. 그의 앞은 아득해지며 어떤 암흑한 낭 아래로 채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어려서부터 그리워하던 이 선비! 한번 만나 보려니…… 하던 이 선비, 이 선비가 이제 저렇게 죽지 않았는가! 찰나에 그의 머리에는 아가 철수에게서 들었던 말이 번개같이 떠오른다.

“돈 많은 계집을 얻구, 취직을 하구…….”

그렇다! 신철이는 그만한 여유가 있었다! 그 여유가 그로 하여금 전향을 하게 한 게다. 그러나 자신은 어떤가? 과거와 같이,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현재와 같이 아무런 여유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신철이는 길이 많다. 신철이와 나와 다른 것이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첫째는 눈을 부릅뜨고 선비를 바라보았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모하던 저 선비! 아내로 맞아 아들딸 낳고 살아 보려던 선비! 한번 만나 이야기도 못 해본 그가 결국은 시체가 되어 바로 눈앞에 놓이지 않았는가!

이제야 죽은 선비를 엿다 받아라! 하고 던져 주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한 첫째의 눈에서는 불덩이가 필멸 나는 듯하였다.

그리고 불뭉 떨어졌다. 이렇게 무섭게 첫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커먼 멍치가 되어 그의 앞에 각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이 시커먼 멍치! 이 멍치는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멍치…… 시커먼 멍치, 이 멍치야말로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 까?

이 인간 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하여 몇 천만 년을 두고 싸워 왔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를 풀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 나갈 인간이 누구일까?

- 강경애, '인간 문제'

006

위 글을 미루어 보아 알기 어려운 사실은?

- ① '첫째'는 '선비'와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 ② '첫째'는 '신철이'와 다시 일을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③ '첫째'는 '간난이'를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 ④ '철수'는 '첫째'의 노동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며 격려해 주고 있다.
- ⑤ '철수'는 공장에서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사정과 일의 내막을 상당 부분 미리 접하고 있다.

④

007

위 글을 읽고 <보기>와 같은 토의 학습을 진행했다. 이 중 가장 적절한 의견을 내 놓은 학생은?



EBS 300제 산문

보기

교사 : 이 작품의 서두 부분에는 작중 인물들의 고향인 '용연' 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화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서사적 사건의 전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자.

- 다음 -

옛날 원망의 못이라는 '원소(怨沼)' 가 생기기 전에, 이 터에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는 어떤 첩자가 살았다. 몇 해를 거꾸 흉년이 들어 굶어죽기 직전에 처한 마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장자 첩지네 집을 습격하여 쌀과 살진 짐승들을 끌어냈다. 장자 첩지는 관가에 고소를 했고, 이에 마을 사람들에게 악행을 가하고 쫓아 버렸다. 가족을 잃어버린 동네 사람들은 목이 터지도록 울었는데, 그 결과 눈물이 고이고 고여서 마침내 장자네 기와집이 하룻밤 새에 큰 못으로 변하였다.

- ① 학생 A : 농촌의 전근대성과 도시의 근대성이 상호 갈등을 일으킬 것임을 예고합니다.
- ② 학생 B : 선과 악의 치열한 대결에서 선이 이길 것임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 ③ 학생 C :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놓인 갈등이 구조적으로 표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 ④ 학생 D : 노동자들은 비록 힘이 없지만 고귀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⑤ 학생 E :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은 운명적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008

위 글을 비평하기 위해 자료를 인용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단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인물형을 설정하여 갈등 극복과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 ② “지적 감상적 도덕적인 면을 두루 갖춘 인물형을 그리기 위해 공동체적 삶을 많이 다루었다.”
- ③ “혼자 힘으로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영웅주의적 인간형을 설정하여 독자의 욕망을 충족시켰다.”
- ④ “자기 혁신과 의식의 각성을 이루는 인물형을 그리기 위해 내면 세계를 포착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 ⑤ “긍정적인 인간형이 아닌, 환경에 안주하는 부정적인 인간형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를 풍자하고 있다.”

④
00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3인칭의 시점을 취하면서도 1인칭의 내면 독백을 사용하고 있다.
- ② 관찰자 역할을 하는 극중 인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시점을 옮겨 놓고 있다.
- ③ 서술자가 나서서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 ④ 관찰자의 입장에 있던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생각을 분석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⑤ 1인칭에서 3인칭 시점으로 옮겨감으로써 인물의 생각을 보다 객관화하고 있다.

①
010

위 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감상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안개가 걷히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銃身)을 겨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협약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고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읊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읊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의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기형도, '안개'

- ① ㉠은 방적 공장의 검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② ㉡는 돈 많은 계집을 얻고 더 나은 곳에 취직하려 간 '신철' 과 비슷한 인물이다.
 - ③ ㉢는 '선비' 와 같이 죽어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황임을 암시한다.
 - ④ ㉣는 '간난이' 와 같이 생기를 잃어 가는 모습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⑤ ㉤는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인간 문제' 중의 하나이다.
- ②

[011-0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이, 저녁이구 뵈이구 하두 말이 뒤숭숭해서, 밥 생각두 없구…….

괜찮아요, 시방 더우 같은 건 약관걸.

응, 글썸, 그애 아버지 말이우, 대체 어떡하면 좋아! 생각하면 고만.

냉면? 싫어. 나는 아직 아무것도 먹고 싶잖아. 그만두고서 뭇 과일즙이나 시원하게 한 대접 타 주. 언니는 저녁 잡셨수? 이 집 저녁 허구는 꽤 일렀구료.

아저씨는 왕진 나가셨나 보지? 인력거가 없구, 들어오면서 들여다보니깐 진찰실에도 안 기실체는… 옳아, 영탁없이. 그 아저씨가 진찰실에도 왕진두 안 나가시구서, 언니하고 마주 안 붙어 앉았을 때가 있다가는 큰일나라구?

EBS 300제 산문

원 눈도 뺄어졌지. 우리 언니 저 아씨가 어디가 이쁜 디가 있구 그래애! 시골뚜기는 할 수 없어. 아따 저 누구냐 쇠알? 읽은 지가 하두 오래 돼서, 다아 잇었네. 뭇이나 보바리의 부인 남편 말이 야…….

허는 소리 좀 봐요. 늙어 가는 동생더러 말할 년이 뭐야? 하하하. 내가 웃기는 웃는다마는, 남의 정신이지 내 정신은 하나두 아니야. <중략>

그러나저러나 대체 어떡하면 좋수? 이 일을…….

나 혼자서 두루두루 생각다 못해 이 집 아저씨허구나 상의를 좀해 볼까 허구서, 부루루 오기는 왔어두, 상의를 하자면, 그새 통히토실을 얹던 속사정을 다아 자상하게 언니한테당 설팔르 해야 하겠구, ㉠ 그랬다가 그런 줄을 그이가 알든지 헐 양이면, 성미에 생벼락이 내릴 테구, 멀쩡한 사람 가져다 미친놈 만들려구 힌다구.

그래서 심뻘 엄두가 나든 않지만, 그래오 어떡허우.

중세가 좀처럼 심상틸 앓어 보구, 그러니깐 무슨 도리를 좀 차리기는 차려야지만 할 것 같은데.

이 집 아저씨 동창이든지 친구든지 누구 신경과 전문하는 이 없나 모르겠어?

신경 쇠약이냐구?

그렇지, 신경 쇠약은 신경 쇠약이지, 그런데 시방은, 오늘버튼은 암만 해두 여느 우리가 생각하는 신경쇠약에서 한 고괘를 넘을 기미야.

언니네는 시골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구, 또 내가 이것저것 털어 놓고 성과를 안 했구 해서 모르기두 했겠지만, 실상 나두 그새까지는 좀 심한 신경 쇠약이거나, 신경쇠약으로 저만큼 심하다니깐더 도질 리야 없구 차차 나아 가겠거나, 일변 걱정은 하면서두 한편으로는 낙관을 허구 잇었더라우.

아 그랬는데, 글썸 오늘은, 아까 즘심 나절이야, 사람이 사툼 심년 감수를 했구려. 시방두 가끔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군 허는걸.

아까 그제 그러니까 두 시가 조끔 못 돼서야. 부엌에서 무얼 좀 허구 있는 참인데, 뚜벅뚜벅 구두 소리가 나요.

무심결에 둘러다봤지. 봤더니, 엔 시커먼 양복쟁이야. 첨에는 몰라봤어. 그제 웬 사람인가 허구 자세 보니깐 그이겠지! 그이가 쇠통 글썸 겨울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이 삼복중에 겨울 양복을.

저를 어찌니가 아니라, 머 정신이 아찔하더라니깐.

그제 제 정신 지닌 사람이 할 짓이우? 하얀 아사 양복을 싹 빨아 대려서 양복장에다가 걸어 준 걸 두어두구는, 이 삼복 염천에 생판 겨울 양복 허구두 그나마 머, 흠스 팽이라든지, 그 손꾸락같이 울끓구 시꺼무레한 거, 게다가 맥고모자며 윈 구두까지 멀쩡한 걸 놓아 두구서 겨울 모자에 검정 구두에 넥타이 와이사쓰 꺼정 언뜻 봐두 죄다 겨울 꺼구려.

그러니, 그렇잖아두 늘 맘이 조마조마하던 참인데, 문득 그 광경을 당허니, 얼마나 놀랐겠수? 내가 말이야.

그냥 가슴이 더럭 내려앉구, 어쩔 줄을 모르겠어. 팔다리허며 입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구.

아이머니, 저이가야! 이 소리 한 마디를 죽어가는 소리루 겨우 입술만 달싹거리구는 냇이 나간 년 매니루 멍하니 섰느라니깐, 그이 좀 보구려! 마당애가 우뚝 선 채 나를 마주 빼언히 바라다보더니, 아 혼자서 벌심허구 웃겠지! 웃어요 글썸.

㉡ 작년 가을 이쪽 도무지 웃는 일이라구는 없던 사람이, 근 일년 만에 웃는구료. 전에 혹시 무슨 유쾌한 일이 있든지 허면, 벌심허구 웃던, 꼭 그런 웃음쟁야.

일변 반갑기두 허구, 그러면서두 가슴이 더 두근거리려 섰는군. 그럴 게 아니우/ 일년 짝이나 웃덜 앓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니, 여편네 된 맘에 웃는 그것만은 반가워두 저이가 영영 상성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말이야. <중략>

㉢ “왜 그래? 여름에 동복을 좀 입었기루서니, 왜 죽는 시늉이 야?”

허를 끌고올 차면서 얼굴 기색허며, 말소리허며 아주 천연스럽구 전대루지, 죄곰두 공허한데가 없어요. 사람이 실성을 허면은 어렌지 말하는 음성이며 태도허며, 건승이구 공허해 보이잖우?

㉣ “칠린! 속물! 세상이 곤두서는 데는 태평이면서, 옷 좀 꾸꾸로 입은 건 저대지 야단이야.”

속물이란 소리는 노상 듣는 독설(毒舌)이구, 나는 그이 눈을 주의 해 보느라구 경황 중에두 정신이 없지. 저 뭇이나, 사람이 영 미치구 나면 눈자가 틀린다구 않수?

㉤ 그런데 암만 찬찬히 파구 보아야 전대루 정기가 돌구 맑지, 머 아무렇지두 않아.

- 채만식, '소망(少妄)'

*소망(少妄) : 젊은 나이에 미침.

01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와 청자 교체하기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중심 화제를 역동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 ② 대화 형식이지만 청자의 말이 생략됨으로써, 화자의 독백이나 수다떨기와 같은 인상을 준다.
- ③ 화자는 자신의 청자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평가하거나 반성하고 있다.
- ④ 독자에게 직접 설교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밝히고 있다.
- ⑤ 독백을 교묘하게 대화 형태로 가장하여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효과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②

012

위 글을 <보가>의 기준에 따라 개요를 작성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EBS 300제 산문

보기

말하는 시간과 행동의 시간이 일치할 때 이를 1차 이야기라 하고, 말하는 시간과 어떤 행동이 일어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를 2차 이야기라 한다.

<사건 개요>

- 1차 이야기
 - ㉠ 여름날 저녁 무렵 내가 의사의 아내인 언니의 집을 방문하다.....①
 - ㉡ 형부가 집에 없어서, 나는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②
 - ㉢ 남편이 겨울 옷 차림을 하고 밖에서 돌아오다.....③
- 2차 이야기
 - ㉠ 남편이 일년 만에 처음으로 웃다.....④
 - ㉡ 내가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다.....⑤

③
013

㉠~㉢ 중 <보기>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 작품의 제목인 '소망(少妄)'이라는 말은 '젊은 나이에 미친 남편'을 뜻한다. 그러나 남편은 미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보다 뛰어난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소망'은, 이 말의 본래의 의미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뜻을, 남편의 정신이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건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언어적 아이러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④
014

위 글을 통해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니 부부는 둘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
- ② 서술자의 남편은 평소 명량한 성품이다.
- ③ 언니 부부는 서술자의 남편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④ 서술자는 남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
- ⑤ 언니 부부는 '나'의 집안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⑤
015

'나'가 언니를 찾아간 동기를 고려할 때,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심정이 남편에 대한 '나'의 심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전생에 지은 원망스런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 장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시중하면서 조심하기를 살얼음 디디는 듯 하였다. - 허난설헌, '규원가'
- ② 나의 일이 망년된 줄은 나라고 하여 모르겠는가?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모두가 입을 위한 탓이로구나. 아무게 아무리 헐뜯어도 임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 윤선도, '견희요'

- ③ 서방님 병들어두고 먹일 것이 없어 종루 시장에 다리를 팔아 배사고, 감 사고, 유자 사고 식류를 샀다. 아차차 있었구나. 오색 사탕을 잊었구나. 수박에 숟가락 놓고 한숨 지어 하노라. - 사설 시조
- ④ 저 입아 물을 건너지 마오. 입은 그에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이할꼬.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⑤ 방 안의 켜 있는 촛불은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걸로 눈물을 흘리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아서 속이 타는 줄을 모르는구나. - 이개의 시조

③

[016-020] 다음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아침에는 늙은 여자는 깨어서 누워 있었다. ㉠늙은 여자의 방은 아파트의 방 중 바깥으로 창이 나지 않은 단 하나의 방이었기 때문에 밖에 어느 만큼 밝았나를 알 수 없었다. 문은 부엌으로 나 있었다. 그 방은 방이 아니라 골방이었다.

늙은 여자는 눈감고 창 밖의 어둠이 균청색으로, 남빛으로, 옅어지면서 창호지의 모공을 통해 청량한 샘물 같은 새벽바람이 일제히 스며들던 옛집의 새벽을 회상했다. 그 여자의 회상은 회상 치곤 아주 사실적이었다. 아파트촌의 새벽이 그 여자의 회상을 따라 밝아 왔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할머니 일어나시라고 해라 하는 젊은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늙은 여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늙은 여자는 못 들은 척하고 반듯이 누워서 명치끼를 쓱쓱 쓸어도 보고 꼭꼭 문질러도 보았다. 그것은 요즈음 늙은 여자의 버릇이었다. 늙은 여자는 요새 건강이 좋지 않았다. 입맛이 없고, 신트림이 나고 가슴이 답답했다. 입맛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누워서 명치를 짚어 보면 속에 응어리 같은 게 어떤 때는 확실하게 어떤 때는 희미하게 만져졌다. 늙은 여자는 환갑 전에 가슴앓이로 죽을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늙은 여자의 시어머니도 환갑 전에 가슴앓이로 죽었다. 사변 중 피난지 역촌에서였다. 돈도 없었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었다. 그 대신 사람들의 뱃속은 아무리 거친 음식도 눈 녹이듯이 삭였고, 험하고 한 데 잠을 자도 고별 한 번 안 걸렸다.

그러나 그 여자의 시어머니는 죽을 먹고도 냉수를 마시고도 신트림을 하였고 명치를 쥐어뜯었다. 하루하루 수척해졌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시어머니는 누워서 자기 명치를 쓸면서 안에 꼭 바나나 만한 게 가로 걸렸으니 먹은 게 내려갈 재간이 있나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의 명치의 가로 걸린 바나나 만한 걸 어떤 허던 달래서 풀리지게 해 볼 양으로 정성껏 명치를 쓸어 드렸다. 해 드릴 수 있는 건 오로지 약치료밖에 없었다. 두메사람들이 일러준 민간요법을 따라 화로의 불돌이 뜨끈뜨끈할 때 누더기에 싸서 명치에 얹어 드리기도 했다. 손으로 쓸어 드릴 때도 불돌을 얹어 드릴 때도 시어머니는 화사하게 웃으며 아이고 시원해, 이이고 시원, 그놈의 게 스스로 풀어지고 이제 다 나온 것 같다고 하였다. 아무리 고통이 심할 때도 며느리의 손만 가면 화사하게 웃으셨다. 그러다가 바나나 만한 건 약손 힘으로 풀어지기는커녕 살쥔 애호박 만하게 자랐고 병자는 눈뜨고 바로 보기 민망하도록 피골이 상접해지더니 어느 날 숨을 거두었다. 지금 늙은 여자는 그때 병자의 명치에서 바나

EBS 300제 산문

나 만한 게 정말로 만져졌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다만 머느리의 손길 이 닿을 때마다 억지로 웃던 웃음만은 지금도 고스란히 떠올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C고통 속에서도 그 웃음이 그토록 화사했던 까닭을 알 듯도 했다. 늙은 여자는 지금 그때의 시어머니와 비슷한 증세로 괴로워하고 있는 곳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여자는 노인네가 과식을 하셔서 그렇죠 하면서 소화제를 한 봉지 주고 끝냈다. 하긴 요새 세상에 누가 약손 따위를 믿을 까마는 그래도 늙은 여자는 그게 아쉬웠다. 소화가 잘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의 손에 만져지는 게 확실한가 아닌가 남의 손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늙은 여자는 아들과 머느리한테 조르고 애걸했다.

“얘들아, 명치 속에 이게 뭐가 한 번 만져 줘 다오.”

어느 날인가 젊은 여자가 가까이 있길래 늙은 여자는 느닷없이 치마끈을 풀으면서 젊은 여자의 손을 끌어다가 명치를 만져 보게 하려고 했다. 젊은 여자는 질겁을 하며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늙은 여자가 충격을 받을 만큼 적나라하게 불쾌한 얼굴을 했다. 늙은 여자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 젊은 여자가 명치끝에 닿았던 손을 마음껏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낼 수 있도록.

- 박완서, '형혼'

01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하여 풍자하고 있다.
- ② 현재형 서술을 통해 사건의 현장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수시로 논평을 가하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④

017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사항만을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ㄱ. 늙은 여자가 전쟁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고 있다.
- ㄴ. 늙은 여자가 가족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ㄷ. 늙은 여자는 과거의 기억을 자신의 병과 연관시키고 있다.
- ㄹ.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ㅁ.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와의 가족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⑤ ㄷ, ㅁ

④

01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가의 소설은 개인적인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가 사회 현실의 전체적인 문맥과 어떤 양상으로 연결을 맺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작가는 구체적인 생활 체험에서 나온 직관력과 섬세한 언어 감각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추상 형태에 생생한 사실감을 부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작가의 관심은 개인과 사회가 도덕적으로 마비되고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원인을 파헤치는 데 있다.

- ㉠ 현재의 자기를 존재하게 한 근원적 뿌리에 대한 부정
- ㉡ 새로운 가치의 형성을 막는 전근대적 가치에 대한 항수
- ㉢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 현상으로 인한 인간 관계의 단절
- ㉣ 공동체적 삶의 형태와 개인주의적 삶의 형태 사이의 부조화
- ㉤ 급속한 근대화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과 서구적 가치관의 갈등

②

019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 ㉠과 ㉡ 모두 과거의 추억과 연관된 회상의 공간이다.
- ㉡ ㉠과 ㉡ 모두 고통스런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의 공간이다.
- ㉢ ㉠이 상상을 통해 형성된 공간이라면, ㉡는 현실에 실재하는 공간이다.
- ㉣ ㉠이 개인적 삶을 위한 공간이라면, ㉡는 공동체적 삶을 위한 공간이다.
- ㉤ ㉠이 강압적으로 주어질 공간이라면, ㉡는 선택에 의해 부여된 공간이다.

⑤

020

㉠에 대한 '늙은 여자'의 판단을 추리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 민간요법에 따라 치료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가 봐.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은 겪으셨지만 그래도 정말 끔찍한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 ㉡ 시어머니께서는 죽음이 다가오길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 같아. 살아서 고통을 계속 겪는 것보다 죽음이 더 깨끗하게 느껴지셨을 테니까.



- ③ 시어머니께서는 내 손길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셨을 거야. 고통은 끔찍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 가족의 정이 더 두터워질 수 있었거든.
 - ④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돌아가신 후 이르게 될 하늘나라의 모습을 꿈꾸고 계셨을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화사한 미소를 지으셨을까.
 - ⑤ 시어머니께서는 내 손길에서 죽은 남편의 손길을 느끼셨을지도 몰라. 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 ③

[021-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논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립 도서관을 찾은 '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가진 한국인이 뉴욕에서 번사체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이십여 년 전 어느 겨울의 기억을 떠올린다.

어렵게 대학에 합격한 '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책을 팔아야 한다. 어느 날 헌책방 주인이 '나'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 시학 : 무명 아나키스트의 전기』라는 책을 찾은 사람이 생겼다면서 연락처를 건네 준다. 이로 인해 '안'을 만나게 되고 그가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게 된다. 퇴근 후 다시 찾아간 인쇄소에서 '안'과 그의 동료들이 비밀 회합을 갖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 후 '안'은 인쇄소 근무를 그만두고 자신들의 일을 도와 줄 것을 제안하고 '나'는 그들이 비밀 책자 발간을 돕는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외로움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나는 시간을 빠르게 흘러 보내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방 안 청소를 했고 휘파람을 불면서 눈과 연탄재가 범벅이 된 회색의 비탈길을 하릴없이 두어 번 오르내렸다. 미약한 햇살마저 판자벽을 슬쩍 벗어나 있었고, 그런 응달에서 불이 튼 어린아이들이 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회색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몸통을 만들고 둥근 얼굴을 얹고 그 위에 돌 조각으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입을 만드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거의 마지막 손질 단계에 있는 우리의 인쇄 책자를 생각했다. 주초에는 그 책에도 눈이 붙여지고 코가 붙여질 것이다. 이상한 흥분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리워하고 있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아무 일이나 그리운 것이 아니라, 비록 외곽에서의 잡일 이기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내가 하기 시작한 바로 그 일을. 바로 그 인쇄소에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그들과 일하는 것을. 아이들이 눈사람을 다 끝내고 쉰 목소리로 만족의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내 목을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 멋진 나무젓가락 콧수염을 단 ①회색의 눈사람의 목에 감아 주었다. <중략>

길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골목으로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 길로 나오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충분히 인쇄소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은 어떤 길로 해서 달려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나는 뛰면서 입으로는 내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기도 비슷한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제발 내가 이 자리에서 잡혀서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앓을 것이 없는 삶이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순식간에 진전되었다. 우리가 기획하고 있던 책은 물론이요 다른 단체들을 위한 인쇄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이 터지고 만 것을 나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연행된 사람들의 이름이 서너 줄 실려 있었지만 교정으로 낮이 익을 한 이름을 제외하고는 생소한 이름들이었다. 그들의 활동은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 그렇듯이 신문의 눈에 띄지 않는 한 구석에 서너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그것은 안을 비롯한 우리 인쇄 담당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에 불충분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이 본명이라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다.

불안한 나날이 시작되었다. 문 밖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나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가슴은 두려움 때문에 두근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고 그리움이였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에 대한 기다림이였다. ㉠안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는, 마치 어느 날 안이 나타나면 다시금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길라도 한 것처럼,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을 누워서 보냈다. 나는 병이 없는 신열을 앓고 있었고 단 하나의 치유법은 수면이였다. 가끔 집주인이 불안한 듯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닫았다. 그녀가 죽음의 확인을 하러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나는 그럴 때마다 끔찍도 하지 않았다. 기대의 두근거림이 포기의 심정으로 변했을 때 나의 이름은 극에 달했다. 그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확신은 참을 수 없는 것이였다. 마치 나의 잘못으로, 나의 고발로 그들의 활동이 저지되더라도 한 것처럼 환각적인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했다.

나는 거리를 헤맸다. 어디에고 그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들과 보낸 서너 달이 남긴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 청계천의 ㉡헌 책방이 있었다. 그러나 책방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인쇄소 쪽으로 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진 인쇄소는 아주 오래 전부터 폐쇄된 금지 구역처럼 보였다. 수소문해 볼 사람도, 전화로 문의해 볼 만한 대상도 없이 나는 지쳐서 방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설령 수소문을 할 건덕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나의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성적으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끈질기게 그들 중의 하나를 기다렸다.

- 최윤, '회색 눈사람'

021

<보기>는 위 글에 대해 공부한 학생의 노트 중 일부이다. 적절한 것을 골라 묶은 것은?



EBS 300제 산문

보기

- ㄱ. 시점 : '나' 는 주변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행 양상을 관찰하고 있다.
- ㄴ. 배경 :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 시절의 암울한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ㄷ. 인물 : '나' 를 포함한 인물들은 모두 사회의 주류에 포함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 ㄹ. 감상 포인트 : 모순적 사회 현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④
022

위 글을 영화로 만들기 위한 회의에서 나온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촬영 장소를 정하기 위해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뒷골목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 ② '나' 역을 맡은 배우는 쫓기는 자의 음울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연기하여야 할 것 같아.
- ③ 연출할 때 앞 장면의 희망적 분위기와 뒷 장면의 절망적 분위기가 서로 강하게 대립되도록 만들어야겠어.
- ④ '안' 을 기다리는 '나' 의 모습을 짧게 계속 보여 주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어때?
- ⑤ 영화 광고에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허무 속에 방황하는 젊은 세대의 기록' 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좋겠어.

⑤
023

<보기>는 ㉠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은 '나' 는 눈과 연탄 재가 뒤섞여 회색이 된 비탈길을 오르내린다. 이 때 아이들이 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회색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하얀 눈이 아닌 회색의 눈으로 이루어진 이 회색 눈사람은 (㉠)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
- ②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버틸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
- ③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벗어나기 힘든 절대적 외로움
- ④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나' 의 심리 상태
- ⑤ 과거의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위협하는 냉혹한 현실 상황

②
024

㉢이 '나' 에게 차지하는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풍요를 약속할 수 있는 후원자
- ② 진정한 학문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스승
- ③ 의미 있는 삶의 세계로 이끌어 줄 인도자

- ④ 힘들 삶의 과정에 필요한 지혜로운 조언자
- ⑤ 약해지는 의지에 자극을 주는 정신적 지도자

③
025

<보기>에서 ㉣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보기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 하니 오늘도 거의 지났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곳 없다. 어디로 가지는 말인가? 잡거나 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 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 리 바깥을 바라보겠는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 나 보려 하니,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계신 곳의 소식을 더욱 아득하구나.

- 정철, '속미인곡'

- ① 구름 ② 해 ③ 물가
 ④ 물결 ⑤ 빈 배

③

[026-0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치회 때의 일로 영래와 중하 은수 그 애들은 선생님을 저점 더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놀려 보려 했던 것이다.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에 관한 음탕(淫蕩)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쪽땀을 먹이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公公然)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이 점차로 깊어 만연되어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 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이 조각이 건네져 왔으며, 펴 보고 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이 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것, 임중하.” 라고 써어 있고 밑에 다 그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변소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 달아 기다렸다. 그동안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얼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중하가 대견한 것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로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내가 가겠다. 왜. 정말 너 이 따위 장난만 하거나?” 중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킬킬 웃어댔다. “그게 니 갈지니?”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나도 지치 않고 말했다. <중략>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 “너희들이 잘못이다.”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지내던 장관석도 중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 적다.” 은수와 중하는 아직도 영래의



EBS 300제 산문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려지두 않고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도 잘못이라구 생각한다.” “한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셋노랑게 질려 있었다. “너희들 반장에게 이리거나?”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둬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찢어, 임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 테나?”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사과 안 하면 몰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 말까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확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 었다.

나는 노짱 속의 어둠을 생생히 기억하구 있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졸라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지. 그 날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내 악몽의 비밀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말했다. “애써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무서워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어 끝내 무서움에서 놓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뒤로 몇 번이나 벼른 끝에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고, 노짱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더랬지. 나는 그 속의 빠다귀가 개뻐, 소뻐, 사람 빠다귀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아무렇지 않게 길을 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이가 어린이들끼리의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거나 모른 채했는지 아직도 알 수 없구나. 다만 아이들이 존경하는 그이가 옆에 계시니까 욱스럽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깨달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026

<보가>는 어느 영화의 줄거리이다. 위 글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월 헌팅은 MIT 공대의 청소부다. 좋아하는 것은 수학과 화학. 어느 날 공대의 래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라며 낸 수학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낸다. 월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복도의 칠판에 해답을 써놓는다.

램보 교수는 문제를 푼 학생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다가 **벌정**에서 폭행죄로 붙잡힌 월을 발견한다. 램보 교수는 월을 석방시켜 주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다. 한 가지는 자신과 함께 수학 연구를 할 것, 다른 하나는 정신과 의사에게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다. 풀려난 월은 수학 연구에는 가까이 참가하지만 상담 치료는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램보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손 교수**에게 부탁한다. 월이 손과 처음 만나던 날, 월은 손의 상처를 들추어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손은 이런 월의 모습을 보고 월에게 부족한 것이 타인의 사랑이며 그 때문에 정신적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음을 간파한다. 손은 월이 가진 내면의 아픔에 깊이 애정을 갖고 관찰하면서 월에게 인생과 투쟁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 월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나갈 힘을 갖게 되고 손의 가르침에 감사를 느낀다.

- ① 위 글의 선생님과 <보가>의 램보 교수는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위 글의 나와 <보가>의 월은 유사한 성격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 ③ 위 글의 노짱과 <보가>의 벌정은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 ④ 위 글의 어머니와 <보가>의 손 교수는 유사한 행동 방식을 갖고 있다.
- ⑤ 위 글의 나와 <보가>의 월은 유사한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거치고 있다.

027

위 글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생님의 내면 심리가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하며 읽는다.
- ② 나와 영래 패거리 사이의 대립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 ③ 나의 심리 변화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 ④ 나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일으킨 심리적 변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 ⑤ 선생님의 가르치므로 인한 나의 행동 변화에 주목해 가며 읽는다.

028

<보가>는 위 글에 나타난 의미의 변화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와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재	변화 이전	변화 이후
교실	폭압적 권력에 의해 통제된 공간	㉠
영래	권력 지향적이면 불의한 존재	㉡

㉠

㉡

- ①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간 비굴하고 초라한 존재
- ② 정의로운 권력에 의해 통제된 공간 소심하고 무기력한 존재
- ③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공간 우호적이며 협조적인 존재



EBS 300제 산문

- ④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공간 권력을 빼앗긴 나약한 존재
- ⑤ 집단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공간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존재

①
029

- 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 하나의 소리가 되어. // 인중(忍從)은 끝이 났는가. / 청동의 벽에 / '역사' 를 가두어 놓은 / 칠혹의 감방에서. - 박남수, '종소리'
 - ② 하늘의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무 /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무에 /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 가을 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 신경림, '목계 장터'
 - ③ 왜 나는 조그만 일에 분개하는가. /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王宮)의 음탕 대신에 /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 웅졸하게 욕을 하고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④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 / 가볍게 가을을 날고 있는 / 나뭇잎, / 그렇게 주고받는 /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 이 커다란 세계를 /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 믿게 해주십시오. - 정한모, '가을에'
 - ⑤ 나무야 간다. / 나의 이 젊은 나이를 / 눈물로야 보낼 거냐. / 나무야 가란다. // 아늑한 이 항군들 손잡게야 버릴 거냐. /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땃부리 모양 /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아 사랑하는 사람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①
030

<보기>는 '나' 가 ㉠에게 쓴 편지이다.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저희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는 무서움에 굴복하면 끝내 그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선생님의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영래 폐거리의 행동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노깡 속에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제가 가진 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앞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③

[031-0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원자허(元子虛)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불의(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는 깨끗한 절개를 가진 선비였다. 그래서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못하고 여러 번이나 나은(羅隱)의 쓰라림을 맛보았다. 원헌(原憲)의 가난을 견딜 수 없어 아침이면 나가 밭을 갈았지만, 저물면 돌아와서 옛 사람의 글을 읽었다.

그는 옛 역사책을 읽다가 왕조가 망하여 나라의 운명이 다하는 데 목에 이르면, 항상 책을 덮은 후 책 위에 얼굴을 묻고 ㉠ 흐느껴 울었다. 마치 위급한 나라를 보고도 자신의 힘이 모자라서 그 나라를 구하지 못한 듯 ㉡ 안타까워했다.

팔월 어느 날 저녁, 그는 달빛을 따라 책을 뒤적거리다가 밤이 이슬해지자 책상에 기대어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별안간 몸이 가벼이 떠오르며 아득한 하늘 위로 떠올러 날아올랐다. 온몸이 차가운 바람을 타고 치솟은 듯도 하고, 날개가 돌아서 신선이 된 것도 같았다.

그러다가 바로 강 언덕 위에 머물렀는데, 밤이 깊어 모든 소리는 숨을 죽이고 세상은 맑고 고요했다. 달빛은 낮처럼 밝은데 물빛은 비단을 편 듯 아름답고, 바람은 갈대를 살며시 울리며 스쳐 지나가고, 이슬은 단풍숲에 푹푹 떨어지곤 했다. 그는 홀연히 눈을 들어 '휘이' 하고 긴 휘파람 소리를 내며 시를 낭랑이 읊었다.

(가)

이 곳은 분명히 장사(장사)의 언덕이라.
 달빛은 밝은데 임은 어디 거나나뇨.

시 읊기를 끝내고 주위를 서성이고 있을 무렵, 별안간 저 쪽 먼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그리고는 얼마 안 돼 갈꽃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야복(野服)에 복건을 썼으며, 정신이 맑고 눈썹이 빼어나 옛날 수양의 모습을 지닌 듯하였다. 그는 자허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전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였다. 자허는 그가 산귀신이나 물귀신이 아닌가 하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준수하고 행동이 단아한 것을 보고는 자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속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자허는 그의 뒤를 따라 걸어들었다. 그 곳에는 정자 한 채가 우뚝 솟아 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 위에 임금이 난간에 의지하여 앉아 있고 그 곁에는 벼슬아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임금을 모시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호걸로 ㉢ 용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늙름하였다. 또한 가슴에는 고마도해(叩馬踏海)의 의미와, 정천봉일(驚天捧日)의 충성을 간직하고 있어, 참으로 육 척의 고아(孤兒)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었다.

EBS 300제 산문

그들은 자허가 오는 것을 보고 일제히 마중을 나왔다. 자허는 먼저 왕에게 나아가 문안을 여쭙고 되돌아와서 각자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맨 끝에 앉았다. 자허는 어떻게 된 까닭인지 알 수 없어서 @따름 속으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 때 임금이 말하였다.

“내 항상 경의 꽃다운 지조를 그리워하였소. 오늘 이 아름다운 밤에 우연히 만났으니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 마오.”

자허는 그제야 의심을 거두고 일어서서 은혜를 감사하였다.

그 후 자리가 정해지자 그들은 고금(古今) 국가의 흥망을 흥미진진하게 논의하였다. 복건 쓴 이는 탄식하면서

“ 옛날 요·순·우·탕은 만고의 죄인입니다. 그들 때문에 ㉠뫼 세상에 여우처럼 아양 부려 임금의 자리를 뺏은 자가, 선위(禪位)를 빙자하여 신하로서 임금을 치고서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 네 임금이야말로 도덕의 시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은 얼굴빛을 바로잡고,

“아니오. 경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오? 네 임금이 무슨 허물이 있겠소? 다만 그들을 빙자하는 놈들이 도적이 아니겠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복건 쓴 이는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며,

“마음 속에 불평이 쌓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분개했습니다.”

하며 사과했다.

그러자 임금은

“그러게 미안해 할 필요는 없소. 오늘은 귀한 손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다른 이야기가 무슨 필요 있겠소. 다만 달은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어찌 그냥 보내겠소?”

하고 마을에 사람을 보내 술을 사 오게 했다. 수리 몇 잔 들자 왕은 흐느껴 울며 말했다.

“경들은 각기 자기의 뜻을 말하여 남몰래 품은 원한을 풀어 봄이 어떠할꼬?”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기이한 사내 하나가 뛰어들었는데, 그는 썩썩한 무인(武人)이었다. 키가 크고, 용맹이 뛰어났으며, 얼굴은 포갠 대추와 같고, 눈은 셋벌처럼 번쩍었다. 그는 옛날 문천상의 정의와 진중자의 맑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 그 늙은 모습은 사람들에게 공경심을 일으키게 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린 뒤 다섯 사람들을 돌아보며,

“애닦다. 썩은 선비들이야. 그대들과 무슨 대사(大事)를 꾸뫼다 말인가?”

하고, 곧 칼을 뽑아 일어서서 춤을 추며 슬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음은 강개하고, 그 소리는 큰 종을 울리는 듯 싶었다.

바람이 쓸쓸하여 잎 지고 물결 찬데

칼 안고 휘파람 길게 부니 북두성은 기울었네.

살아서 충성하고 죽은 굳센 혼을 마음에 품으니

어찌 강에 비친 한 조각 둥근 달과 같겠는가.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달은 검고 구름은 슬픈 듯, 비바람은 트립한 듯 큰 소리로 오는데,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크게 나 그들은 모두 깜짝 노라 흠어들었다. 자허도 역시 놀라 깨어 보니 모두 한바탕 꿈이었다.

- 입제,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 나은(羅隱) : 중국의 시인, 과거 시험에 운이 없어 열 번이나 낙제를 하였음.

* 원헌(原憲) :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노나라 사람. 공자의 제자로 집이 몹시 가난했음.

* 고마도해(叩馬滄海) : 고마란 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이고, 도해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뜻이다. (고마는 주나라의 무왕이 은의 주왕을 치러 갈 때, 백이, 숙제가 말을 잡고 막았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 경천봉일(驚天捧日) : 하늘을 높이 들고, 해를 받듯. 여기서 하늘과 해는 임금을 가리킴.

* 선위(禪位) : (임금이) 다음 임금에게 왕위를 물려 줌. 선양(禪讓).

* 문천상 : 중국 송나라 대의 충신.

* 진중자 : 춘추전국 시대의 청빈한 선비.

031

위 글의 창작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독자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장 인물이 모두 하나의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인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 ② 꿈을 깬 후의 현실이 꿈 꾸기 전의 현실보다 한층 더 고양된 현실로 설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 ③ 서술자가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 ④ 특별한 사건의 전개 과정보다는 주로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한 효과는 무엇일까?
- ⑤ 서술이 초점 대상이 되는 인물을 불우하거나 원망을 품은 인물로 설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032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원자허’의 인물 성격을 추리해 본 것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행위 주체자인 인물이 성격을 외면적 특성과 내면적 특성의 총합이다. 외면적 특성은 작품 내에 직접 명시가 된 인물의 이름, 나이, 성별, 생김새, 옷차림, 말씨, 출신 지역, 혈통 등이다. 내면적 특성은 외면적 특성을 고려하되, 인물 자신의 말은 물론이고 다른 인물이 그 인물에 대해 하는 말이나 서술자가 직접 서술한 정보들로 추리하여야 한다.

<인물 성격의 추라>

- ㄱ. 의(義)를 매우 가치 있는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 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자폐 의식이 강하다.
- ㄷ. 자신의 문제보다는 사회나 국가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ㄹ. 주변인들이 지조를 그리워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큼 인품이 훌륭하다.
- ㅁ. 격론을 벌이는 상황에도 자신의 의견을 무리하게 개진하지 않을 만큼 겸손하다.
- ㅂ. 인물의 이름(호)에 '빌 허(虛)' 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욕의 생활을 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ㅁ
-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ㄹ, ㅂ
- ④

033

위 글을 읽고 <보기>와 같은 학습 활동을 수행해 보았다. 이해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교사 : 여러분, <자료1>과 <자료2>는 이 작품의 창작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를 참고한 다음 등장 인물의 설정, 사건·배경의 설정, 작가의 서술 태도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자료 1> 문종이 승하하고,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하였다. 수양대군은 무인세력을 휘하에 두고 야망의 기회를 엿보다가, 1453년(단종 1년, 계유정란) 김종서를 살해한 뒤 사후에 왕에게 알리고 왕명으로 충신들을 소집한 뒤 영의정과 이조 판서 등을 죽이고 좌의정도 유배시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권을 잡은 수양대군은 병마권을 장악하였다. 1455년에는 단종이 선위(禪位)하게 하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자료 2>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친 데 대하여 생육신은 살아 있으면서 귀머거리나 소경인 체하며 벼슬을 하지 않고 여생을 보내며 단종을 추모하였다. 김시습·원호·이맹전·조려·성담주·남효온이 이에 속한다.

- ① 해원 : 원자허, 야복(野服)을 입은 인물, 벼슬아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생육신' 들의 모습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 ② 은애 : 선위를 방지하여 임금의 치고서 정의를 외쳤다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는 '수양대군'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 ③ 유정 : 요·순·우·탕의 네 임금은 허물이 없으며, 다만 그들을 방자하는 놈들이 도적이라고 말한 것은 '단종' 의 분개한 마음이라고 여겨 집니다.
- ④ 창영 : 꿈 속에서 만난 등장 인물들을 대체로 훌륭한 모습으로 그린 것으로 보아 '작가' 는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⑤ 민규 : 작중 배경은 당시 '계유정란' 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작품 속에서 무인이 나타나 칼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⑤

034

(가)에 들어갈 내용을 완성해 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고, 비유나 의인화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할 것)

- ① 이슬 내린 강물은 맑고 고요한데 / 흔들리는 내 마음은 갈대와 같구나.
- ② 저 물길은 밤새 고요히 흐르건만 / 차디찬 내 마음은 막힌 듯 흐르지 않네.
- ③ 강물은 숨을 죽인 듯 밤새 흐느끼지만 / 바람은 즐거이 휘파람만 부는구나.
- ④ 원한이 사무친 듯 강물마저 흐르지 않고 / 갈꽃도 단풍잎도 우수수 우는구나.
- ⑤ 이슬과 단풍은 계절의 흐름을 알리는데 / 마음 둘 곳 없는 나는 정처없이 떠도네.

- ④
- 035



EBS 300제 산문

인물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간접적인 상황이지만, 직접 대면하는 일인 양 '비분강개(悲憤慷慨)' 하고 있군.
- ② ㉡ : '자격지심(自激之心)' 의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군.
- ③ ㉢ : 인물의 품모가 한 마디로 '위풍당당(威風堂堂)' 한 모습이군.
- ④ ㉣ : 몹시 편안하지 못한 마음 상태이므로 '좌불안석(坐不安席)'의 심정 이군.
- ⑤ ㉤ : 뻔뻔스럽고 부끄러움 없이 행동한 것이므로 '후안무치(厚顏無恥)' 한 행동이야.

②

[036-0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민 영감은 남양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매우 영특했다. 그는 옛사람들의 기절(奇節)과 위적(偉蹟)을 사모하여 7세부터 해마다 고인들이 그 나이에 이룬 업적을 벽에다 쓰고 분발하였으나 아무런 일도 이루지는 못했다. 무신년 민란에 관군을 따라 토벌에 나가 공을 세워 참사(僉使)라는 벼슬을 얻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끝내 벼슬하지 않았다.

“영감님은 신선도 보았소?”
 “보았지.”
 “신선은 어디에 있소?”
 “집이 가난한 자가 바로 신선이래요. 부자들ㅇ는 늘 속세를 그 리워하는데, 가난한 자는 언제나 속세를 싫어하니, 속세를 싫어하 는게 신선이 아니고 무엇이었소?”

“영감님은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겠구려?”
 “보았지. 내가 오늘 아침 숲 속에 들어갔더니, 두꺼비와 토끼가 제각기 나이가 많다고 다투더군. 토끼가 두꺼비더러
 ‘내가 꿩조와 동갑이니까, 너 같은 자야 말로 후생이다.’ 하고 말하니까, 두꺼비가 머리를 숙이고 훌쩍훌쩍 읊는다. 토끼가 깜짝 놀 라서

‘왜 그리 슬퍼하나?’
 물었더니, ㉠두꺼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동쪽 이웃집 어린아이와 동갑이었는데, 그 아이는 다섯 살 때에 벌써 글을 읽을 줄 알았단다. 그는 아득한 옛날 천황제(天皇氏) 때에 태어나서 인년(寅年) 역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왕(王)과 제(帝)를 거쳤으며, 주(周)나라에 이르러 왕룡이 끊어지자 책력 하나를 이루었지, 진(秦)나라 때에 윤달이 들었고, 한(漢) 당(唐)을 거쳐 아 침엔 송(宋)나라가 되었다가 저녁엔 명(明)나라가 되었지. 모든 사변 을 겪으면서 기쁜 일, 놀라운 일, 죽은 이를 슬퍼하는 일, 가는 이를 보내는 일 등으로 지루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에 이른 것이야. 그런 데도 오히려 귀와 눈이 밝아지고, 이와 털이 나날이 자란단 말이야. 저 아이처럼 나이 많게 살았던 자는 없을 거야. 그런데 꿩조는 겨우 팔백 살을 살다가 일찍 사라졌더니, 그는 세상을 겪은 것도 많지 못 하고, 일을 경험한 것도 오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슬퍼 하는 거지.’

결국 토끼가 두 번 절하고 뒷걸음질치면서

‘네가 내 할아버지뻘이다.’

합다. 이로써본다면 글 많이 읽은 자가 가장 목숨이 긴 거라 우. “

<중략>

민 영감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메리처럼 빨랐다. 끝내 아무도 그를 골탕 먹이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기리기도 했으며, 곁에 앉은 사람을 놀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잡고 웃어도, 민 영감은 얼 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 라고 감독한다디다. “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으네,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이놈이 날면 명(螟)이 되고, 붙으면 모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지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디다.”

민 영감이 말했다.

“이 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내 소기엔 종 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蝗蟲)일뿐입니다.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데다 눈은 빛나지요. 입은 주 먹이 드나들 만큼 큰 데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 에 벌굽이 서로 닿고 궁둥이가 잇달아 있습니다. 이놈들보다 더 농사 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 다.

어느 날 민 영감이 찾아왔다. 내가 그를 바라보고 은어(隱語)로 “춘첩자(春帖子) 방제.”

라고 말했다.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 ‘춘첩자’ 는 문(門)에다 붙이는 글(文)을 가리키므로, 이 건 바로 나의 성인 ‘민(閔)’ 일 게고. ‘방’ 은 늙은 개니까 나를 욕하 는 말일 테지. ‘제(啼)’ 는 내 이빨이 빠져서 말소리가 웅얼대는 게 들기 싫다는 뜻일 테지. 당신이 만약 ‘방’ 이 두렵다면, 견(犬)을 버려야 할거요. 또 제가 듣기 싫다면 그 구(口)를 막아 버려야 하겠 지. 그러면 그 나머지 글자인 제(帝)는 조화(造化)를 뜻하고, ‘방’ 은 큰 물건을 뜻하지요. 그렇게 해서 ‘제’ 자에다 ‘방’ 자를 덧붙 이면, ‘크다’ 는 뜻이 되는 동시에 그 글자 모양은 방(帝)이 되겠 지요.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모욕한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칭찬한 게 된다우.”

그 이듬해에 민 영감이 세상을 떠났다. 세상 사람들은

“민 영감이 비록 지나치게 넓고 기이하며, 얽매이지 않고 호탕하 지만, 그의 성격은 깨끗하고 곧으며, 즐겁고도 밝다. ‘주역’ 에 밝 고, 노자(老子)의 글을 좋아했으며, 그가 대체로 엮보지 못한 글이 없다.” 고 말했다.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무과(武科)에 올랐지만, 아직 벼슬하지 못하 였다. 올해 가을에 내 병이 더친 데다, 민 영감도 다시는 만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와 더불어 나누었던 은어(隱語), 해학 (諧謔), 풍자(諷刺)등을 모아서 이 ‘민옹전’ 을 지었다. 때는 정축 년 가을이다. 이에 시를 지어서 민 영감의 죽음을 슬퍼한다.

-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EBS 300제 산문

03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이 지닌 속성을 이용하여 중심 사건의 의미와 연관짓고 있다.
- ② 중심 인물에 대한 관찰자를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면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 ③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대립 관계를 통해 주동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초점이 되는 인물을 형상화하기 위해 보여주기와 말하기의 기법을 혼용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동기와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전후 사건의 인과적 의미 관계를 밝히고 있다.

037

㉠의 대화 전략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이야기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면 부정하고 있다.
- ② 사예의 이야기에 내포된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내고 있다.
- ③ 상대의 이야기가 옳다며 동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상대를 설복시키기 위해 우회적이며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상대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가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038

황충(蝗蟲)을 잡으면서 독자가 떠올렸을 법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허장성세(虛張聲勢) → 인간들은 실속없이 큰소리만 치고 소다닌다는 말이군!
- ㉡ 허례허식(虛禮虛飾) → 양반들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예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다는 말이군!
- ㉢ 오만무례(傲慢無禮) → 사람들은 건방지거나 거만하여 예의(禮義)를 돌보지 아니한다는 뜻이군!
- ㉣ 호가호위(狐假虎威) →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는 무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군!
- ㉤ 가렴주구(苛斂誅求) → 지배층에 있는 자들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거나 빼앗고 있다는 것이군!

- ① a, d ② a, e ③ b, c
 ④ b, d ⑤ c, e
- ②

039

[A]와 <보기>를 참고하여 '신선' 이 지닌 공통 속성을 추리해 낸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떤 사람은
 “선(仙)이란 산에 사는 사람이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게 바로 선이다.”
 하였다. 선(仙)이란 선선(仙仙)케 가벼이 공중으로 들려 오르는 뜻이니만큼, 벽곡(僻穀)하는 자라도 반드시 신선은 아닐 것이다. 울울(鬱鬱)히 뜻을 얻지 못한 자가 바로 신선일 것이다.
 - 박지원, ‘김신선전’
 * 벽곡 : 곡식은 안먹고 솔잎, 대추, 밤 따위만 날로 조금씩 먹음. 또는 그런 삶.

- ① 어디에도 구속받기 싫어하는 사람
- ② 고달프지만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사람
- ③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 ④ 묘연하여 행적을 알기 힘들 정도로 떠도는 사람
- ⑤ 재주와 포부는 갖고 있지만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사람

⑤

040

- ㉠과 유사한 발상으로 표현이 이루어진 것은?
- ① 왕(王)의 여덟 번째(八) 딸(女)은 ‘姜(姜)’이다.
 - ② 논두렁에 살피를 짓고 서 있는 자는 ‘논 입자’이다.
 - ③ 부르기도 전에 미리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미리 예(豫)’이다.
 - ④ 계속 거듭해서 차는 행위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또 차(且)’이다.
 - ⑤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는 ‘피마자(蘇麻子)’이다.

①

[041-0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춘향이 ㉠옥방(獄房)에서 장탄가(長歎歌)로 울던 것이었다.
 “이네 죄가 무슨 죄냐. <중략> 답답하고 원통하다. 날 살릴 이
 누웠을까. 서울 계신 우리 낭군 벼슬길로 내려와 이렇듯이 죽어갈
 제 내 목숨을 못 살린가. 하운(夏雲)은 다기봉(多奇峰)하니 산이
 높아 못 오던가. 금강산 상상봉(上上峰)이 평지 되거든 오려신가.
 [A] 병풍에 그린 황계(黃鷄) 두 나래를 툭툭 치며 사경일점(四更一點)
 에 날 새라고 울거든 오려신가. 애고 애고 내 일이야.”
 죽창문을 열치니 명정월색(明淨月色)은 방안에 든다머는 어런것이
 홀로 앉아 달더러 묻는 말이
 [B] “저 달아. 보느냐. 님 계신 데 명기(明氣) 빌려라. 나도 보게
 야. 우리 님이 누웠더냐 앉았더냐 보는 대로만 네가 일러 나의 수
 심 풀어다오.”
 애고 애고 싫게 울다 홀연 잠이 드니 비몽사몽간(非夢似夢間)에
 호접(胡蝶)이 장주 되고 장주가 호접 되어 세우(細雨)같이 남은 혼백
 (魂魄) 바람인 듯 구름인 듯 한 곳을 당도하니 천공지활(天空地闊)하
 고 산령수려(山靈水麗)한데 은은한 죽림간(竹林間)에 일층(一層)
 화각(畫閣)이 반공(半空)에 잠겼거늘 ㉡대체 귀신 다니는 법은 대풍
 기(起)하고 승천입지(昇天入地)하니 베개 위 잠깐 동안의 봄 꿈 중에

EBS 300제 산문

강남 수 천 리를 다 가더라. 전면을 살펴보니 황금대자(黃芩大字)로 만고정렬 황릉지묘(黃古貞烈黃陵之廟)라 뚜렷이 붙였거늘 심신이 황홀하여 배회더니 천연한 남자 셋이 나오는데 석숭(石崇)의 애첩 녹주(綠珠) 등총(燈籠)을 들고 진주 기생 눈개, 평양 기생 월선이라. 춘향을 인도하여 내당으로 들어가니 당상에 백의(白衣)한 두 부인이 옥수(玉手)를 들어 청하거늘 춘향이 사양하되

“진세간(塵世間) 천첩(賤妾)이 어찌 황릉묘를 오르리까.”

부인이 기특히 여겨 재삼 청하거늘 사양치 못하여 올라가니 좌(座)를 주어 앉힌 후에

“네가 춘향인가? 기특하다. ㉠일전에 조희차로 요지연(瑤池宴)에 올라가니 네 말이 낭자키로 간절히 보고 싶어 너를 청하였으니 심히 불안하다.”

춘향이 재배(再拜)한 후 아뢰기를

“침이 비록 무식하나 고서(古書)를 보옵고 사후에나 존안(尊安)을 뵈옵까 하였더니 이렇듯 황릉묘에 모시니 황공비감(惶慙悲感)하여이다.”

상구부인이 말씀하되

“우리 순군(舜君) 대순씨(大舜氏)가 남순수(南巡狩)하시다가 창오산(蒼梧山)에 붕(崩)하시니 속절없는 이 두 몸이 소상죽림(瀟湘竹林)에 피눈물을 뿌려놓으니 가지마다 아롱아롱 잎잎이 원한이라. 창오산봉상수절(蒼梧山崩相水絕)이라야 죽상지루내가멸(竹上之淚乃可滅)을 천추(千秋)에 깊은 한을 하소할 곳 없었더니 네 절행(節行) 기특키로 너더러 말하노라. 송관 기천 년에 청백은 어느 때며 오현금(五絃琴) 남풍시(南風詩)를 이제까지 전하더냐.”

이렇듯이 말씀할 제 어떠한 부인이

“춘향아. 나는 기주명월 음독성에 화선(化仙)하던 농옥(弄玉)이다. 소사(蕭史)의 아내로서 태화산(太華山) 이별 후에 승룡비거(乘龍飛去)한이 되어 옥소(玉簫)로 원을 풀 제 곡조가 끝나자 날아가 버리니 그 간 곳을 모르겠고 산 밑의 벽도화만 봄에 절로 피는구나.”

이러할 제 또 한 부인 말씀하되

“나는 한궁녀(漢宮女) 소군(昭君)이라. 호지(胡地)에 시집을 잘 못가니 일개 담 뒤에 푸른 무덤뿐이로다. 마상(馬上) 비파 한 곡조에 화도로 소군의 이름다운 얼굴을 알겠고 환괘 소리에 헛되어 돌아왔구나 달밤의 혼이여. 어찌 아니 원통하라.”

한참 이러할 제 음산한 바람이 일고 촛불이 벌렁벌렁하며 무엇이 촛불 앞에 달려들거늘 춘향이 놀래어 살펴보니 사람도 아니요 귀신도 아닌데 어렴풋한 가운데 곡성이 낭자하며

“여봐라 춘향아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뉘고 하니 한고조(寒苦鳥) 아내 척부인(戚夫人)이로다. 우리 황제 세상을 하직한 후에 여후(呂后)의 독한 숨씨 나의 수족 끊어 내어 두 귀에다 불 지르고 두 눈 빼어 병어리 되는 약을 먹여 측간 속에 넣었으니 천추에 깊은 한을 어느 때나 풀어보라.”

이리 울 제 상군부인 말씀하되

“이곳이라 하는 네가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고 행위자별(行爲自別)하니 오래 유(留)치 못할지라.”

여동(女童) 불러 하직할 새 동방(洞房) 실슬성(蟋蟀聲)은 시르렁 일쌍 호접은 펴펴. 춘향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로다. ㉡옥창(玉窓) 앵드화 떨어져 보이고 거울 복판이 깨어져 뵈고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 보이거늘

“나 죽을 꿈이로다.”

수심 걱정 맘을 쉼 제 기러기 울고 가니 일편 서강(西江) 달에 행안남비(行雁南飛) 네 아니야. 맘은 깊어 삼경이요 곳은비는 퍼붓는데 ㉢도깨비 뻘뻘, 밤새 소리 붓붓, 문풍지는 펄렁펄렁, 귀신이 우는데 난장(亂杖) 맞아 죽은 귀신, 형장 맞아 죽은 귀신 결령지사(結縈致死) 대롱대롱 목매달아 죽은 귀신 사방에서 우는데 귀곡성(鬼哭聲)이 낭자하다. 방 안이며 추녀 끝이며 마루 아래서도 애고애고 귀신 소리에 잠들 길이 전혀 없다.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창오산봉상수절(蒼梧山崩相水絕)이라야 죽상지루내가멸(竹上之淚乃可滅) :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수의 물이 흐르지 않아야 대나무에 뿌려진 눈물이 없어질 수 있다.

* 행위자별(行爲自別) : 행위가 저절로 서로 다르다.

* 결령지사(結縈致死) : 목매달아 죽임.

041

위 글의 서사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사적인 인물이나 고사의 내용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 ② 대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인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 ③ 자연적 배경이 인물의 심리와 분위기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
- ④ 몽환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 ⑤ 탄식 섞인 말투를 구사하여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042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신의 얼굴은 달도 아니언만
산 넘고 물 넘어 나의 마음을 비춥니다.

나의 손길은 왜 그리 짧아서
눈앞에 보이는 당신의 가슴을 못 만지나요.

당신이 오기로 못 올 것이 무엇이며
내가 가기로 못 갈 것이 없지마는
산에는 사다리가 없고
물에는 배가 없어요.

뉘라서 사다리를 떼고 배를 깨뜨렸습니까.
나는 보석으로 사다리 놓고 진주를 배 모아요.
오시려도 길이 막혀서 못 오시는 당신이 기루어요.

- 한용운, '길이 막혀'

① [A]와 <보기>는 모두 만남을 가로막는 자연물을 설정하여 현재의 답답

EBS 300제 산문

한 처지를 강조하였다.

- ② <보가>는 [A]와 달리 대상을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정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
- ③ <보가>는 [A]와 달리 상징적인 소재를 추가함으로써 대상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 ④ <보가> 역시 [A]와 마찬가지로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을 설정하여 현재의 처지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보가>는 모두 의문형 어미를 적절히 구사하여 대사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내었다.

⑤
0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
- ③ ㉢ : 대상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 : 사건이 극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⑤ ㉣ : 인물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

044

밑줄 친 ‘달’의 기능이 [B]의 ‘달’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산에 시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어 / 병 속에 물과 달을 함께 길었네 / 절에 돌아와 비로소 깨달았으리 / 병을 기울이면 달도 따라 비게 되는 것을
- 이규보, ‘영정중월’
- ② 서리 하늘 달 밝은데 은하수 빛나 / 이국땅 머무는 나그네 귀향 생각 깊도다 / 긴긴 밤 홀로 앉아 시름 이기지 못하는데 / 홀연 들리니 이웃 아낙 다듬이 소리
- 양태사, ‘야충도의성’
- ③ 열다섯 살의 아리따운 아가씨 / 사람이 부끄러워 말도 못 하고 이별했네 / 돌아와 껌문을 닫아 걸고는 / 배꽃처럼 하얀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 임제, ‘규월’
- ④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 달 비친 사창(紗窓)에 저의 한이 많습시다 / 꿈 속의 님에게 지취를 남기게 한다면 / 문앞의 돌길에 반쯤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 이옥봉, ‘꿈속의 님’
- ⑤ 달하 높이 돌아 멀리멀리 비추시라 /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 곳을 디디실까 두렵습시다 / 안전한 곳에 집을 푸시어요 그대 가는 곳 저물까 두렵습시다.
- 백재 가요, ‘정읍사’

⑤

045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춘향은 원래 속세의 인간이 아니라 천상계로부터 내로온 인물이로군.
- ② 춘향은 난군이 위기에 빠진 자신을 구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군.
- ③ 춘향은 꿈에서 깨어 부인들과 헤어지게 된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군.
- ④ 춘향의 꿈은 현실에서 이를 수 없었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군.
- ⑤ 춘향은 꿈의 내용이 앞으로 탁월 불행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군.

⑤

[046-0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충이 전일에 아내와 더불어 안 띠에다 약주머리를 달아 요괴로운 짐승을 물리치자 하고 약속한 일이 생각나서, 약주머리를 풀어 바람을 타고 약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 때 금돼지가 잠에서 깨어나 약 냄새를 맡고 묻기를, “어찌하여 세간의 약 냄새가 나느냐?” 하니 충의 아내가 남편의 피인 줄 알고 이내 공손한 말로 대답하기를, “제가 이곳에 온 지 오래지 않아 아직 인간의 냄새가 남아 있어 그러하옵나이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지라. 금돼지가 묻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 충의 처가 말하기를, “제가 이곳에 와 보니 인간 세계와는 만사가 아주 다르므로 슬퍼서 우나이다.” 하니 금돼지가 위로하여 말하기를, “여기는 인간 세계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조금도 슬퍼하지 말라.” 하매 충의 아내가 눈물을 닦고 부드러운 말로 묻기를, “제가 인간 세계에 있을 때 들으니 신선 세계의 사람은 ㉠사슴 가족을 보면 죽는다 하던데 과연 그러하옵나이까?” 하고 물으니 금돼지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알지 못하나 다만 사슴 가족을 꺼리는 바요.” 하니 다시금 묻기를, “왜 꺼리나이까?” 하니 금돼지가 대답하되, “사슴 가족을 씹어서 머리 뒤쪽에 붙이면 병이 되어 죽게 되요.” 하고 말을 마치자 다시 쓰러져 자더라.

충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죽여 원한을 갚고자 하나 사슴 가족이 없어 가슴이 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약주머니의 끈이 사슴 가족으로 되어 있는지라. 가만히 꺼내어 씹어서 금돼지의 뒤통수를 붙였더니 과연 말처럼 말도 하지 못하고 죽더라.

이리하여 충은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으며 나머지 미녀들도 역시 충의 덕을 입어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가족들이 충에게 깊이 감사하여 마지않더라.

충의 아내 임신한지 넉 달 만에 금돼지에게 잡혀갔고 돌아온 지 여섯달 만에 아들을 낳으니 손톱과 발톱이 조금 이상하더라.

충은 그 금돼지의 아들인가 의심하고, 시비(侍婢)를 시켜 큰길에 갔다 버리게 하매, 어린애는 길 가운데 죽은 지렁이를 보고 ‘-(일)’ 자라 하니, 시비는 들어가서 아뢰었으나, 충은 다시 갔다 버리라 하더라. 시비는 눈물을 뿌리며 어린애를 안고 가는데, 또 개구리 죽은 것을 보고 ‘天(천) 자라 하더라.

이에 시비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다시 와서, “개구리 죽은 것을 보고 天(천) 자라 하였나이다.” 고 고하니 충이 화를 내며, “네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로 내하겠노라.” 고 하더라. 이에 시비는 숨으로 포근히 싸 가지고 길에 갔다 버렸더니, 소와 말이 피해 가며 밟지 아니하고, 밤이 된즉 천녀(天女)가 내려와서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이었으니, 판리나 백성들이 거두고자 했으나 큰 죄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더라.

충은 이 소문을 듣고 어린애를 못에 갔다 던지려 했더니, 연꽃 한 송이가 별안간 생겨나서 공경히 받들었고, 백학 한 쌍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날개로 어린애를 덮어주더라. <중략>

(나)



EBS 300제 산문

다음날 아침에 승상은 시비로 하여금 난방(蘭房)에서 시 짓는 모습을 엿보라 하더라. 이에 파경노(破鏡奴)는 자기 이름을 지어 치원(致遠)이라 하고, 자는 고운(孤雲)이라 하더라. 나씨는 치원의 옆에 앉아 빨리 시 짓기를 재촉하더라.

치원은,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것이니 너무 재촉하지 마오.”

하고는 나씨로 하여금 종이를 벽 위에 바르라 하고, 스스로 붓대롱을 잡아 발가락을 끼고 자더라.

나씨도 또한 근심하던 나머지 고단하여 자 버리니, 꿈속에 쌍룡이 하늘에서 내려와 석함(石函) 위에서 엮이어졌고, 무늬 옷을 입은童子(童子) 열 명이 석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를 같이 하여 노래를 부르니, 석함이 열려지려는데 오색서기(五色瑞氣)가 쌍룡의 콧구멍으로부터 나와 함 속을 환히 비치고 붉은 옷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들이 좌우로 늘어서서 혹은 시를 지어 읊고 혹은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승상이 사람을 불러 시를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나씨가 놀라 깨니 곧 한 꿈이더라.

치원 역시 깨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 써 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하더라. 시의 내용은 이러하더라.

단단석함리(團團石函裡) 등글고 등근 함 속의 물건은
반백반황금(半白半黃金) 반은 희고 반은 황금인데,
야야지시명(夜夜知時鳴)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함정미토음(含情未吐音) 뜻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

치원은 나씨를 시켜 승상 앞에 바치게 하더라. 승상은 오히려 믿지 않다가, 운영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대궐로 들어가 왕에게 시를 바쳤더니,

왕은 크게 놀라며 물기를, “경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아 가지고 시를 지었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아뢰되, “신이 지은 바가 아니옵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올시다.” 하니, 이에 왕은 사신을 보내어 중국 황제에게 바치매, 황제는 보고 말하기를, “등글고 등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황금이라고 한 시구는 맞거니와,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고 하건만, 뜻만 머금을 뿐 소리를 토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틀렸노라.” 하고 석함을 열고 달걀을 보니, 여러 날 따뜻한 숨 속에서 안겨 병아리가 되어 있더라.

황제는 탐복하면서 말하더라. “이는 천하의 기재(奇才)로다!”

하고 학사를 불러 보이니, 학사도 또한 칭찬하기를 마지않더니 이윽고 아뢰기를,

[A] “상대편의 소매 속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알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만리(萬里) 절역(絕域)에서 능히 이 물건을 구명(究明)하기를 이와 같이 자세히 알아냈으니, 옛날부터 중원에서 이 같은 기재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나이다. 오직 두려워하는 바는 소국이 대국을 능멸할 단서가 될까 하오니 바라옵건대 시를 지은 자를 불러들여 어려운 문제를 능히 풀어 낸 사유를 물으심이 좋을 까 하나이다.”

하나 황제께서 윽게 여기시고 신라에 시 지은 기사(奇士)를 보내도록 지시하니 <후략>

- 작자 미상, '최고운전(崔孤雲傳)

위 글 (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채록 일시 : 2004년 0월 0일
채록 장소 : 경기도 00군 00면 00리
제보자 : 김 00 (여, 76세) 채록자 : 박 00

옛날 어느 시골의 가난한 선비가 있었거든. 그런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에 방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인즉 괴물에게 잡혀간 딸을 찾아오면 사위로 삼고 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었어. <중략> 우여곡절 끝에 딸을 만난 선비는 그녀를 데려오려 했는데, 글썽 황금 돼지 모양을 한, 힘센 괴물이 살아 있는 한 도망은 불가능하다고 했어. 선비는 무슨 방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처녀는 방책을 알아볼 테니 나무 뒤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 다음날 처녀는 흰 말 가죽만 보던 황금 돼지가 무서워 오금을 못 편다는 걸 알아냈어. 이야! 신기하게도 그때 마침 선비에게는 흰 말 가죽으로 만든 담배쌈지가 있었던 말쑤이야! 그래 가지고 설라무네, 선비가 그 흰 말가죽을 괴물 앞에 딱 내미니, 괴물이 벌벌벌 떨었어. 이때 선비가 그 틈을 타서 칼을 빼 황금 돼지의 목을 탁! 하고 쳤는데, 아니 떨어진 머리가 자꾸만 다시 붙는 게 아니겠어? 이때 처녀는 부엌에서 재를 가지고 와서 괴물의 목을 벤 자리에 뿌렸어. 야, 이렇게 해서 선비는 그 처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둘은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대.

- ① <보기>는 구어체의 서술이 사용된 반면, (가)에서는 문어체의 서술이 사용되었다.
- ② <보기>는 (가)와 달리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 ③ <보기>는 (가)에 비해 남자보다 여인의 용기와 기지가 더 돋보이도록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 ④ <보기>에서는 (가)와 달리 서술자가 인물 제시나 사건 전개에 있어서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⑤ <보기>에 비해 (가)에서는 사건의 인과성을 위해 괴물의 약점을 여인이 알아내는 장면을 더 자세히 드러내었다.

③

047

가능한 측면에서 볼 때, ㉠과 가장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은?

- ① 임이어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그에 건너지고 말았네 /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가신 입을 어이할꼬.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기'
- ② 필필나느 저 꼬꼬리 / 암수 서로 정답구나 / 의외올사 이 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
- ③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 남의 아내 빼앗은 죄, 그 얼마나 크랴 / 네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으면 / 그물로 잡아 구워서 먹으리. - 작자 미상, '해가'
- ④ 선화공주님은 / 남 물래 짝 맞추어 두고 / 서동방을 / 밤에 물 안고 간

EBS 300제 산문

다. - 서동, '서동요'
 ⑤ 자춧빛 바위가에 / 잡고 있는 암소 농게 하시고 /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
 시면 /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건우 노인, '헌화가'

③
 048

수업 시간에 <보기>와 같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위 글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고귀한 혈통을 지님.
- ㉡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잉태나 출생.
- ㉢ 비범한 능력을 가짐.
- ㉣ 어려서 버림을 받아 죽을 고비에 이룸.
- ㉤ 구출자, 양육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남.
- ㉥ 성장하여 다시 위기에 처함.
- ㉦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가 됨.

- ① 최고운의 모친이 임신한지 넉 달 만에 금돼지에게 잡혀갔고, 돌아온 지 여섯 달 만에 그를 낳았으며, 손톱과 발톱이 조금 이상하였다는 것은 기이한 잉태나 출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 ② 간난 아기가 죽은 지렁이를 보고 '-(일)' 자라 하고, 개구리 죽은 것을 보고 '天(천)' 자라 한 부분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 같아.
- ③ 최충이 시비(詩婢)를 시켜 아이를 큰 길과 못에 갖다 버리게 하는데 이 대목은 어려서 버림을 받아 죽을 고비에 이르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소와 마리 버려진 아이를 피해가고, 밤에 친녀가 내려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연꽃과 백학이 보호해 주었다는 것은 구출자와 양육자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대목에 해당되는 것 같아.
- ⑤ 최고운이 쓴 시가 중국의 황제와 하가를 탄복시킨 것은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가 되는 대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⑤
 049

- ㉠에 담겨 있는 '학사'의 말하기의 의도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 ①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그러니깐 매사에 조심하고, 사고를 만났을 때 취해야할 응급 요령이나 대처 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요해."
 - ② "우리 반에 희진이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대단해. 부러워 죽겠어. 난 왜 희진이처럼 안 될까?"
 - ③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은 정말 무서운 능력이야. 나도 그런 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 ④ "경쟁 업체에서 신형 장비를 개발한다는 데,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어. 정말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면 개발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해."
 - ⑤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식이 뛰어나도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하면 남에게 시달리게 마련이야. 그러므로 체력을 단련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

④
 050

<보기>의 자료와 조건을 참고하여 위 글에 이어질 내용을 추리해 보려는 수행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자료>

'최고운전'은 신라 말기의 대학자 최치원을 영웅화한 전기(傳記) 소설이다. 조선 시대의 많은 군담(軍談) 소설들이 전쟁을 소재로 하여 놀라운 도술과 무예를 발휘하는 영웅을 창조하고 있으나, 이 소설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역력하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갖가지 피해를 주었던 중국인들의 오만과 횡포에 대한 울분과 적대감을 중국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여 그들의 황제를 비판하는 최치원의 모습을 통해 형상화했다.

<조건>

-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적을 통해 민족의 자부심을 부각시킬 것.
- 기이한 결말로 처리하여 주인공의 행적에 대해 신비감을 부각시킬 것. - 단, 실존 인물로서의 최치원의 행적이 아닌, 허구적 인물로서의 최치원의 행적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구성할 것.

- ① 중국에 간 고운은 중국 황제와 학사들로부터 그의 뛰어난 문재를 인정받아 높은 벼슬을 제수 받게 되고,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격문을 써서 난을 평정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
- ② 중국에 간 고운은 자신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중국 조정의 의도를 알아 채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은거한다. 그러다 난을 일으킨 황소가 그를 스승으로 모시며 함께 천하를 평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그동안의 울분과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황소와 함께 중원을 누비며 큰 제국을 건설한다.
- ③ 중국에 간 고운은 처음에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 높은 벼슬까지 하며 안락한 생활을 하지만 황소의 난을 당해 황소에게 붙잡혀 고생을 하다 가까스로 탈출하여 신라로 돌아온다. 그의 높은 학식과 문명(文名)을 알고 신라 왕은 그를 재상으로 삼아 어수선한 정국을 수습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의 허방해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결국 가야산에 들어가 은거하며 일생을 마친다.
- ④ 중국에 가게 된 고운은 여러 시험에서 뛰어난 글재주로 승리를 거두고, 과거에도 급제하여 이름을 떨치게 된다.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문을 써서 난을 평정하지만, 그를 시기한 대신들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그 후 황제가 다시 부르지만 인재를 몰라보는 황제를 비판한 뒤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
- ⑤ 중국 황제의 부름을 받은 고운은 글재주를 겨루는 갖가지 시험에서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위의 부러움과 두려움을 사게 되고, 과거에도 급제하여 벼슬길로 나가게 되지만 외국인으로서의 한계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고국인 신라로 돌아온다. 신라 왕의 부탁으로 조정을 돕게 되지만 그를 질투하는 간신들의 모략에 의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게 된다.

[051-0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김진희와 이혈룡은 부모님들의 낯다른 우의를 생각하여 출세하면 서로 도와 주기로 맹세한다. 과거에 급제한 진희는 평양 감사가 되었으나 혈룡은 곤궁한 처지가 되었다. 어느 날 혈룡은 진희를 찾아갔으나 진희는 그를 죽이려 한다. 이 때 기생 옥단춘은 혈룡의 비범함을 보고 그를 구출한 다음 가연을 맺고 행복하게 지낸다. 이어 혈룡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걸인 행색으로 옥단춘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변함없이 혈룡을 반긴다. 연광정에서 잔치를 벌이고 놀던 진희가 걸인 혈룡을 보고 옥단춘과 함께 강물 속에 던져 죽이려 한다.

저 사공 대답하되, “아무리 야속한들 명령이 엄속하니 살릴 묘책 없나이다. 어서 바빠 조처하라.” 하거늘,

춘이 **㉠**하릴없이 하는 거동 보소. 두 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머리에 쓰고 이를 박박 갈고 벌벌 떨면서,

“에그머니 나 죽는다!”

한마디 소리에 풍덩 뛰어들려 하는지라. 어서 깜짝 놀라 춘의 손목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며 잡아서 앉히고 연광정(煉光亭)을 건너다 보면서,

“서리 역졸들이 어디 갔느냐?” 하는 소리 천지 진동하니, 난데 없는 역졸(驛卒)들이 벌떼처럼 내달으며 달과 같은 마패를 일월(日月)같이 높게 들고 우레 같은 큰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암행 어사 출도요! 암행 어사 출도요!”

두세 번 외치는 소리 연광정이 뒤눕는 듯 대동강(大同江)이 뒤눕는 듯,

“저기 가는 저 사공아, 거기 타신 어사또 놀라시지 않도록 고이모셔 오라!” 하는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지라. 어사또 거동 보소. 사공더러, “배를 급히 연광정에 대어라!” 호령하니, 사공들이 어이없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배를 급히 빨리 저어 연광정에 대었더라.

춘이 그체서야 정신 차려 하는 말이, “임아, 임아, 암행 어사 서방님아. 이것이 꿈 아니요? 꿈 같으면 행여 깰까 걱정이요.” 어사또 하는 말이, “사람은 죽을 지경에 빠진 후에도 살아나는 법인데, **㉡**년 이런 재미 보았느냐?”

춘이 기쁜 중에 재담(才談)으로 하는 말이, “**㉢**구중궁궐

아니여자가 어디 가서 보오리까?” 어사또 연광정에 좌정(坐定)하고 출도 구경 살펴보니 오는 놈가는 놈 모두 넋을 잃고, 역졸에게 맞은 놈들 유혈(流血)이 낭자하다. 눈 빠진 놈, 코 깨진 놈, 머리 깨고 팔 부러진 놈, 다리 부러진 놈, 앞드러진 놈, 자빠진 놈, 오락가락 무수하다. 그 중에서 각을 수령들은 뜻밖에 변을 당하여 겁내는 거동 가관이다. 칼집 쥐고 오줌 누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개울로 들어가고, 또 어떤 수령은 말을 거꾸로 타고, 동서를 분별치 못하여 이리저리 갈팡 질팡 지향없이 도망하니, 오다가 혼을 잃고 가다가 넋을 잃고, 한참 이리 요란한데,

평양 감사 거동 보소. 의기양양 노닐다가 ‘출도’ 소리에 다급하여 혼불부신(魂不附新)달아나는데, 마루 끝에 떨어져서 삼혼칠백(三魂七魄) 간데없고, 왼쪽 눈의 동자 부치는 벌써 떠나 멀리가

고, 오른 눈의 동자 부치는 이제야 떠나려고 파랑보에 짐을 싸고 신들메 하느라고 와썹와썹 야단이다.

이 때에 비장들고 달려들어 구안(苟安)할 때, 어사또 분부하되, “비장을 잡아 내라!”

추상같이 호령하니, 좌우 나출 일시에 달려들어 결박하여 나입(拿入)하니, 어사또가 분부하기를,

“너희놈들 들어라! 남의 막하에 있어 관장(官長)이 불선(不善)한 정사(政事) 있거든 착한 일을 권할 것이거늘, 도리어 악한 일을 권하니, 무죄한 백성 어이 살며, 양반 어디 있을소냐?”

혈벌 제구(刑罰諸具) 차려 놓고 숙정패(肅靜牌)를 내어 꽂고, 팔십 명 나출 중에 날랜 놈 십여 명을 이리저리 골라 내어 엄하게 호령하여 왈,

“너희놈들 매질에 사정 두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대상(臺上) 호령 지엄하니 뉘 아니 상쾌하리오. 곤장 오십 대씩 때려서 큰 칼을 씌워 하옥하고, 감사를 나입할 때 서리 역졸 청령(廳令)하고 물러나와 감사 상투 거머쥐고 끌어 내어,

“평양 감사 김진희 나입하였소.” 하는 소리 천지 진동하더라. 어사또 거동 보소. 감사를 당장에 봉고파직(封庫罷職)한 연후에 옛일을 생각하니 슬픈 생각도 솟아나고 분한 마음 또한 측량 없다. 형구를 갖추어서 형틀 위에 달아 매고 팔십 명 나출과 서리 역졸 좌우로 나열하여 형장 든 놈, 곤장 든 놈, 능장 든 놈, 태장 든 놈 각각 서로 골라 들고 대상 호령 기다릴 때 어사또 호령하되,

“여봐라, 김진희야! 너 나를 자세히 보라. 혈룡을 지금까지 모르겠느냐. 천하 몸쓸 김진희야. 너와 내가 전일(前日)에 사생 동거(死生同居) 공부할 때, 성은 서로 다름망정 대대 친구요, **㉤**정의(情誼)를 생각하면 동태동골(同態同骨)인들 이에서 더하겠는가? 서로 맹세 언약할 때 내가 먼저 귀하게 되면 나를 살게 해 주고, 내가 먼저 귀하게 되면 너를 살게 해 달라고 네 입으로 맹세했지 내가 먼저 하자 했느냐. 마침 내가 먼저 등과(登科)하여 평양 감사 갔다는 말을 풍편(風便)에 너도 듣고 옛 일을 생각하니 태산같이 맺은 언약 살려 줄 듯하기로 너를 찾아가려 하니 풀진 노자 전혀 없이 나의 아내 친행(親行) 때에 입었던 옷을 팔아 준 돈을 가지고 너를 찾아 평양 왔다가 통자(通刺)도 못 하고서 여러 날을 유숙(留宿)하니 노자도 떨어지고 주인도 가라 푸대접하여 이리저리 다닐 적에 기갈(飢渴)을 못 이기어 입은 옷을 팔아 밥을 사 먹으니, 이도 한때뿐이라, 현 누더기 주워 입고 전전걸식(轉轉乞食) 다닐 적에, 네가 대동강에 놀이한다 소문 듣고, 그 날 너를 볼까 하고 근근히 틈을 타서 네가 노는 근처를 찾아가니, 배반(杯盤)이 낭자(狼藉)하고 음식이 푸집하고 풍악이 평강할 제 굶주린 이내 마음 구미(口味) 얼마나 당길소냐. 너 먹고 남은 음식 조금 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는 나를 모른 채하고 미친 놈이라고 배에 실어다가 대동강 물 속에 넣어 죽이라 했으니 그 무슨 까닭이냐. 이 몸쓸 놈 김진희야! 바른대로 고하여라!” 추상같이 호령하니, 좌우 나출들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 옥철월 번개같이 투드락 탁탁 한참 치니 김 감사 거동 보소.

“에고 에고, 어사또님, 제발 적선(積善) 살려 주오. 제가 죽을 죄를 지을 때가 되어 귀신이 시킨 바라. 죽고 살기는 어사또 처분이다. 죽을 죄 지은 놈이 다시 무슨 말씀 하오리까?”

어사또 다시 호령하되, “네 이놈, 옥단춘은 무슨 죄로 나와 함께 죽이려 하였느냐. 네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살려 둘 수 없도다.”

EBS 300제 산문

사공 불러 분부하기를, “네 이놈을 전의 나처럼 배에 싣고 대동강 깊은 물에 던져라!” 하니 사공이 청명란 후, 김진희를 배에 싣고 만경창과 등등 떠서 나갈 적에 어사또 어진 마음 다시 생각하고 하는 말이, “저놈은 제 죄를 죽을망정 윤택(代)의 의리를 생각하고 옛정을 생각하면 나 또한 저와 같이 차마 죽일 수가 없구나.” 하고 나졸 한 놈 급히 불러 분부하기를, “너는 급히 배에 가서 그 양반 물속에 한 참 넣었다가 거의 죽게 되거들랑 도로 건져 싣고 오라.” 하니 나졸 영(令)을 받고 강을 향하여 달려갈 적에, ㉠별안간 뇌성벽력이 대작(大作)하여 김진희에게 벼락을 쳐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시신도 없어 졌더라.

나졸과 사공이 들어와 그 사연(事緣)을 품달(稟達)하니 어사또 진희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옛 일을 생각하여 슬피 통곡한 연후에 진희의 처자, 노비와 비장 등 여덟 명을 불러 말해 가로되,

“나는 진희와 같이 차마 못하고 정배(定配)하려 하였더니 하늘이 괴씸히 여기시고 천벌(天罰)로 죽이시니 내 원망은 하지 마라.”

하고, 각각 노자를 후하게 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니라.

- 작자 미상, '옥단춘전(玉丹春傳)'

- * 재담(才談) : 재치 있게 하는 말.
- * 혼불부신(魂不附新) : 혼비백산.
- * 삼혼칠백(三魂七魄) : 사람의 넋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신들메 :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끈을 매는 일.
- * 구안(苟安) : 한때 겨우 편안함. 혹은 일시적인 인락을 피함.
- * 나입(拿入) : 죄인을 법정으로 잡아들임.
- * 청령(廳令) : 명을 들음.
- * 동태동골(同態同骨) : 같은 모양과 같은 골격, 곧 혈육을 일컬음.
- * 친행(親行) : 처음으로 친정에 나들이를 가는 것.
- * 통자(通刺) : 예전에, 명함을 내놓고 면회를 청하던 일. 또는 그 명함.
- * 기갈(飢渴) : 굶주리고 목이 마름.
- * 품달(稟達) :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쭙.

05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② 유사한 성격의 어구를 반복해 율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전지적 작가의 관점에서 서술하되 극정 구성의 효과를 주고 있다.
- ④ 일반적인 권선징악의 주제를 벗어나 비극적 결말로 전개되고 있다.
- ⑤ 인과 관계의 서사 구조를 통해 사건 전개에 진실성이 강조되고 있다.

③

052

위 글에 드러난 갈등 양상을 적절하게 정리한 것은?

- ① 혼인을 통해 신분의 상승을 꾀하려는 옥단춘과 사회 관습이 충돌한다.
- ② 김진희가 자신의 욕망 실현을 방해하는 배타적인 집단과 대결한다.

- ③ 이혈룡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을 해치려는 김진희와 대립 갈등한다.
- ④ 옥단춘이 사랑의 성취를 위해 신분의 차이와 현실적 고난을 극복한다.
- ⑤ 이혈룡이 친구인 김진희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기생 옥단춘과 대립한다.

③

05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어쩔 수 없이' 라는 뜻이다.
- ② ㉡ : 위기를 모면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③ ㉢ : '깊고 깊은 부녀자의 거처' 라는 뜻이다.
- ④ ㉣ : 어사의 명령을 행하는 나졸을 지칭한다.
- ⑤ ㉤ : '친구로 사귀어온 정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깊다' 는 뜻이다.

④

054

표현과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과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장끼란 놈 하난 말이,
 “맥은 그러하나 눈청을 살펴보소. 동자(瞳子) 부처 온전한가.”
 까토리 한심 쉬고 살펴보며 하난 말이
 “인제는 속절없네. 저 편에 눈에 동자 부처 칫 새벽에 떠나가고 이 편 눈에 동자 부처 지금에 떠나려고 파랑보에 붓짐 싸고 곰방대 붙여 물고 길목 버선 감발하네. 애고 애고 이내 팔자 이대지 기막(奇薄)한가, 상부(喪夫)도 자주 하네. 칫째 낭군 얻었다가 보라매에 채여 가고, 둘째 낭군 얻었다가 사냥개에 물려 가고, 셋째 낭군 얻었다가 살림도 채 못 하고 포수에게 맞아 죽고, 이번 낭군 얻어서는 금실도 좋거니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남겨 놓고 아들딸 혼사도 채 못해서 구복(口復)이 원수로 콩 하나 먹으려다 닳에 덜컥 치었으니 속절없이 영 이별하겠구나.”

- ① 사실적 묘사를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른 작품에 사용된 표현을 이용하였으나 작품에서의 효과를 살리지 못했다.
- ④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을 독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전한다.
- 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의 연결을 통해 장면의 비현실성을 노출하여 사실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②

055

㉠의 상황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 신작 버리듯 하는군.
- ② 곤장을 매고 매 맞으러 가는 격이군.
- ③ 성인도 시속을 따르는 법이건만 어찌 예외가 없을까?

EBS 300제 산문

- ④ 덕은 닦을 데로 가고 죄는 지은 데로 간다는 말이 마즌 말이군.
- ⑤ 시주 팔자에 없는 편을 쓰면 이마가 벗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군.

④

[056-0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은 그제야 비로소 김좌수 딸이 분명함을 알고 칼머리를 들고 앞으로 다기앉으면서 남자의 손을 잡고 길이 탄식하여 이르는 말이,

“규중의 연약하신 남자가 소생의 죄로 말미암아 친신만교를 겪으시고 험난한 곳에 들어와 외로운 심회를 위로하시니 진실로 생사간에 잊히기 어렵겠나이다. 그러하오나 사람의 목숨이 중하기로는 남녀의 구별이 없잖거든 어찌 소생의 죄에 남자가 대신 죽으려 하시뇨? 이는 천만 불가하오나 그러한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시고 빨리 돌아가소서. 만일 타인이 기미를 아오면 재앙이 적지 아니할 것이외다. 소생은 이미 스스로 지은 허물이오라 죽어도 한할 바 없거니와 남자는 무슨 연고로 따라서 대환(大患)을 당하시리요?”

하니, 남자는 이 말을 듣고 정색하며 하는 말이,

“군자의 말씀은 가장 의리에 적당치 못하나다. 옛글에 일렀으되, ‘여필종부(女必從夫)’ 라 하였으니 첩이 군자를 따라 죽는다 할 지라도 또한 불가함이 없겠거늘 하물며 군자를 위하여 목숨을 바꿈에 서리요? 이는 민중에 떳떳한 의리이며 당연히 군자께서 친척을 불초한 사람으로 보시와 능히 이를 이행치 못하리라 여기심이외다. 첩의 일편단심이 허사로 돌아감이 어찌 가석치 아니하오리까? 일이 이미 이 지경에 다다랐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세상 사람을 대하리요? 차라리 이곳에서 자결하여 그로써 첩의 진정을 표하겠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더니 남자는 의연히 품속에 간직했던 칼을 꺼내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더라.

깜짝 놀란 사업이 급히 칼을 빼앗으며 위로하여 타이르되,

“남자의 말씀은 지당하오나 내 어찌 내 죄로 남자더러 차마 대신 죽으라 할 수 있으리요? 소생의 심회가 매우 어지러워 한 마디로 결단키 어려우매 남자는 잠시 진정하소서.”

하고, 남자는 다시 재촉하기를,

“일이 급하온지라 어찌 허술히 처리하겠나이까? 옥졸들이 만약 술을 깨오면 두 사람이 한 가지로 목숨을 보존치 못하올진대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보전하ومی 낫지 않겠나이까?”

하며 재삼 재촉하는지라, 사업이 내심 생각하기를, ‘남자의 언사와 기상을 보매 비록 몸은 여자일망정 열렬한 남자의 언동이나 만일 그 말을 따르지 않을진대 필연 자결할 터이니 기왕 이럴할 바에는 그 말을 시행하였다가 차후에 내 다시 좋은 계획을 도모하여 보리라.’

하고 남자가 손을 잡으며 슬피 탄식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무단히 이 사람의 불민함으로 사지에 빠지게 하니 신명이 만일 없이 있을진대 어찌 이 몸을 용서하리요? 그러하나 이제 남자의 굳은 뜻을 변키 어려운지라, 당장은 말씀대로 순종하려니와 이 사람의 마음이 어찌 편안하리요?”

하면서 통분함을 마지 아니하니라, 이에 이르러 남자는 눈빛을 고치며 다시 바빠 이야기를 재촉하는지라 이생은 할 수 없이 남자가 입고 들어온 옷을 바꿔 입고 자기 목에 씌웠던 칼을 남자에게 씌우니 남자의 언사는 비록 남자에 못지 아니하나 중시 여자의 몸이라 기질이 약하여 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더라. 이생이 그 거동을 보매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라 차마 발길을 돌이키지 못하며 서성거리고 남자 또한

비참함을 겨우 억제하나 목이 메어 차마 말을 못하니 이 어찌 슬프다 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옥졸들 깨달으면 화를 벗어나지 못하겠기로 남자는 입을 악물며 사업을 밀쳐나가게 하니 그 형상은 초목 금수일 지라도 감동하겠더라.

[A] 사업이 할 수 없이 들어서 나오니 어느때나 다름없이 옥졸이 지켜 있으나 처음에 남자가 들어올 때 있던 옥졸이 아닌고로 아무리 이생의 얼굴이 남자와는 다르고 눈물 흔적이 있으나 동문 수학하던 사이에 생리사별 당한 피차에 슬퍼함이 있음직한 일이므로 의심치 아니하고 내보내니 이생이 남자의 말소리로 옥졸을 향하여 무수히 치사하고 나가더라. 이생이 한 걸음에 두 번씩 엎드러질 지경이나 타인이 알까 염려하여 슬픔을 억누르고 호젓한 산길을 더듬어 돌아올새,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러 땅바닥에 주저앉더니 목이 메도록 슬피 통곡하여 멈출 바를 모르더라.

이때 남자의 종인이 집에 들어가 좌수께 보이니 이에 좌수가 물기를,

“아가씨는 어디 가고 네 홀로 돌아오느냐?”

종인이 대답하기를,

“아가씨는 이러저러하여 옥졸을 달래어 옥중으로 들어가시며 말 씀하시기를 내일이나 돌아오신다 하시더이다.”

하기에, 좌수가 심중에 의아하게 여기면서 딸아가 돌아오기를 고대하더라.

지리한 하룻밤이 지나가고 밝은 날이 다시 저물도록 옥랑의 자취가 없는지라, 모두들 마음에 의혹이 생기어 온 집안이 뒤숭숭한 뒤숭숭한 중에 부인이 조급한 마음으로 남자의 침방에 들어가 서안(書案)을 살펴보니 편지 한 통이 놓여 있기에 궤이쩍게 여겨 들어 보니 곁봉에 쓰기를 ‘불효녀 옥랑’ 이라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옥낭자전(玉娘子傳)’

056

<보기>는 위 글을 읽고 접한 참고 자료이다. 이 글과 <보기>를 읽은 후에 보인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EBS 300제 산문

보기

< '옥랑자전' 의 사건 개요 >

- ㉠ 명나라 만력 연간에 함경도 고원 지방에 사는 이춘발의 아들 '시업' 과 영흥 지방에 사는 김 좌수의 딸 '옥랑' 이 약혼을 하다.
- ㉡ 시업이 하인을 데리고 신부집에 성례하러 가던 도중 영흥의 토호 일행과 마주쳐 시비가 일었는데 급기야 토호의 한 사람이 시업의 하인에 의해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 결국 시업은 옥에 갇히다.
- ㉢ 이 일을 안 옥랑은 죽기를 결심하고 옥으로 찾아가 시업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 한 뒤에 그를 옥문밖으로 몰래 내보내다.
- ㉣ 옥랑이 남겨 놓고 간 편지를 뜯어보고 난 좌수택은 사태의 전말을 알고 큰 혼란에 빠진다.
- ㉤ 부사가 시업을 불러 문초하려 하는데, 그가 시업이 아닌 것을 알아낸 뒤 크게 분노했으나 옥랑의 자초지종을 듣다.
- ㉥ 부사가 옥랑의 행위에 감격하고, 이 사실을 나라에 보고하자 나라에서는 천고의 절행이라 칭찬하고 시업의 죄를 사하는 동시에 옥랑을 정렬부인으로 봉하였다.

- ①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건의 필연성이 약하다고 생각해. 시업이 성례하러 가던 도중에 토호의 일행과 우연히 부딪힌 일이 이런 점을 뒷받침해 줘.
- ② 우리가 읽은 부분은 ㉢와 ㉣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건 전개가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편의 상황과는 달리 다른 한쪽은 위기 상황을 잘 모르는 일상적인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잖아?
- ③ 이 작품에서 옥랑에 대한 인물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와 ㉥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 따라서 작품 후반부의 사건 전개 방향이 주제 의식을 구현한다고 생각해.
- ④ 옥랑이 남겨 놓고 간 편지는 ㉢에서 옥랑이 자신의 행위를 결심하기까지의 심정과 동기가 상세히 들어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어. 그래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부모님께 밝힐 수 있지 않겠어?
- ⑤ 완전한 부부로서의 결연이 아닌 상태에서 두 남녀가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이므로 '만남-헤어짐-만남(재결합)' 의 서사 구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 어쨌든 시업과 옥랑은 닥쳐온 난관을 극복한 뒤에 행복한 만남으로 결말이 지어졌다고 봐.

①
057

위 글의 갈등의 양상을 분석한 것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시업 : 옥랑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 ㉡ 옥랑 : 부모의 만류를 받아들일 것인가 시업을 구하러 갈 것인가?
- ㉢ 옥출 : 옥랑을 들여보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 ㉣ 김좌수 : 옥랑과 시업의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옥랑 모친 : 옥랑의 편지 내용을 좌수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 ① ㉠ ② ㉠, ㉡ ③ ㉠, ㉡, ㉢

- ④ ㉠, ㉡, ㉢, ㉣ ⑤ ㉠, ㉡, ㉣, ㉤, ㉥

①
058

<보기>의 설명에 따라 '시업' 과 관련된 인물의 성격을 설명 할 때, 가장 적절한 항목은?

보기

소설 속 '인물' 의 개념은 소설 속에 나타나는 인물 특성들의 총합으로 규정된다. 즉, 행위의 연속에서 어떤 한 인물이 취하는 각각의 행동 특성과 그에 따른 생각들, 다른 사람들의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모두 합한 결과이다.

- ① '시업' 은 옥을 빠져나간 다음에 취할 행동을 미리 생각하고 있다. → 주도면밀(周到綿密)
- ② '시업' 은 남녀에게는 각각 해야 할 일이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부부유별(夫婦有別)
- ③ '시업' 은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 자업자득(自業自得)
- ④ '옥랑' 은 민중의 떳떳한 도리를 시업이 들어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다. → 배은망덕(背恩忘德)
- ⑤ '시업' 은 '옥랑' 의 말에 심회가 어지러워 결단을 내리기 힘들어하고 있다. → 우유부단(優柔不斷)

③
059

위 글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현대적 의미에 관한 진술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항상 이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현대의 풍속이 아무리 변해도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진리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허술한 법의 집행 과정의 문제점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데, 사회 기강과 규범의 확립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③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문학과 현대인들의 풍속의 교화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④ "남자로 변장하여 활약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영웅 소설의 면모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의 시대 정신에 상당히 부합한다."
- ⑤ "상대의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 약혼마저 파기해 버리는 현대의 세태에 비추어볼 때, 비록 법을 어기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혼인 존중의 정신만큼은 높이 기려야 한다."

⑤
060

[A] 부분이 <보기>를 바꿔 쓴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효과로 적절한 것

EBS 300제 산문

은?

보기

사업은 할 수 없이 돌아서 나왔다. 그런데 옥졸이 문을 지키고서 있었지만 나오는 사업에 대해 별다른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사업은 옥문을 순순히 나서면서 옥졸들을 치사했다. 이생은 호젓한 산길을 더듬어 돌아온 뒤, 인적 없는 곳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슬피 통곡했다.

- ① 서술 속도가 더 빨라진다.
- ② 위기 상황을 더 고조시킨다.
- ③ 이생의 행동을 객관화하여 보게 한다.
- ④ 이생의 위장 전술이 매우 뛰어난 점을 강조한다.
- ⑤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려 주어 사건에 인과성을 부여한다.

061-0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잎에 떨어질 때 의젓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가을 나무의 저 멋, 이것은 아주 정신적인 것이다. 그것을 슬프게 보고 눈물짓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인간의 ㉠감상(感傷)이 아닌가 생각된다. 깨끗하게 버릴 것을 훌훌 버리고 나서는 또 ㉡의연하게 버티고 서서 더욱더 높고 깊어진 하늘의 무한을 ㉢성진 가지로 받들어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자세는 얼마나 당당한가.

저 잎새를 부는 ㉣소슬한 바람 소리, ㉤질철한 치레를 깨끗이 벗어 버리고 알몸 그대로의 의지로 장차의 서릿발과 눈보라를 견딜 자세로 서 있는 저 나무들의 의젓함은 참말 아름답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조용히, 어디까지나 겸허하게,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그 자신에게 닥치는 보다 더 큰 운명, 보다 더 위대한 섭리의 진실에 대처하고 있다. 그것이 자연에 관해서든, 인사(人事)에 관해서든 어떤 사물의 궁극적인 철리(哲理)를 깨달아 파악하는 일이 인생에겐 필요하다. 그 과정의 기복(起伏)과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요체가 도리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특히 조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인간이 받은 특혜가 있다면 바로 이 스스로의 운명, 어떤 종교적인 결말과 지혜와 경험으로 미리 깨달아 안다는 사실일 것이다.

가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가을과 겨울의 진실, 조락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안다는 것이 된다. 아니 가을을 여름의 연장이나 변화로, 가을을 겨울이나 또 그 다음 계절의 전제로서 아는 것은 참 가을의 뜻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 가을 자체가 지닌 철리, 가을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진실로서 우리에게 던져 주는 아주 정확한 섭리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가을은, 이러한 인생적인 진실을 말해 주고, 가을의 조락과 가을의 그 물들음이 가져다 주는 정결하고 멋진 가을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저 잔디가 더 누렇게 타고, 불 뽕뽕 타오르는 샬비어꽃이 다 떨어지고, 커다랗게 바람에 불리우며 아직은 청청(靑靑)한 플라타너스 잎이 누렇게 단풍 들면 가을은 더 가깝게 나에게 육박할 것이다. 그 누

런 나뭇잎이 훌훌 떨어지고 성긴 가지만이 하늘을 가리킬 때 나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또 투명해질 것이다.

- 박두진, '가을 나무'

(나)

나는 사시절 중에서 가을을 가장 사랑하듯이, 꽃도 가을꽃을 좋아한다. 꽃치고 정답고 아름답지 아니한 꽃이 어디 있으리오마는, 나는 꽃 중에서는 가을꽃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들국화를 더 한층 사랑한다.

가을꽃으로 대표적인 꽃은 코스모스와 들국화이리라. 코스모스와 들국화가, 백화가 난발(亂發)하는 봄, 여름을 지나고 나서, 찬 이슬 내리는 가을에야 피는 꽃들이기에, 가을에 피는 꽃들은 어딘가 처량한 아름다움이 있다. 가을꽃 치고 청초하지 않은 꽃이 어디 있는가? 코스모스가 그러하고, 들국화가 그러하다.

그러나 코스모스는 사람이 가꾸어야 피고, 따라서 대개는 들이나 화단 같은 데 피지마는, 들국화만은 누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필 뿐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편이나 산 속에 핀다. 내가 코스모스보다도 들국화를 한층 사랑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다.

가을 아침 일찍이 산이나 들에 나가 보라. 그대는 아무도 없는 잡초 사이에 찬 이슬을 함빡 머금고 피어 있는 들국화를 볼 수 있을지니, 그 그윽한 기품에 그대는 새삼스러이 놀라게 될 것이다.

들국화는 특별히 신기한 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에 외로이 피어 있는 그 기품이 그윽하고, 봄, 여름 다 지나 가을에 피는 기개(氣概)가 그윽하고, 모든 잡초와 어울려 살면서도, 자기의 개성을 끝끝내 지켜 나가는 그 지조가 또한 귀여운 것이다.

들국화는 달리아나 칸나처럼 빛깔도 야단스럽게 아름답지 아니하고, 꽃송이의 구조도 지극히 단순하다. 그러나 보랏빛의 부드러움도 순결한 맛은 볼수록 마음을 이끌리게 한다. 찬란한 빛깔로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 없는 가운데 자신의 순결성을 솔직히 보여 주는 그 겸손이 더 한층 고결하다.

나는 가을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꽃도 가을꽃을 사랑하고, 가을꽃 중에서도 들국화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 정비석, '들국화'

061

(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③ 현상에만 얽매이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속성과 자신의 삶의 자세를 연결시키고 있다.
- ⑤ 인간의 삶에서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62

(가)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보기>와 같은 메모를 했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BS 300제 산문

보기

가을 나무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다. 젊었던 시절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나뭇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에서 겹허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에는 봄의 약동과 여름의 성장을 가지 있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을의 조락을 더 정신적인 의젓함으로 여기게 되었다. ㉢물론 가을은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철리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낙관적인 인생관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평행 감각을 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⑤

063

(나)를 쓰기 위해 글쓴이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이 지닌 개성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 ② 대상을 대하는 예찬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자.
- ③ 대상의 지닌 특성을 다른 꽃과의 대조를 통해 제시하자.
- ④ 대상의 외면적인 특성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⑤ 대상이 인간의 삶에서 실용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도록 하자.

⑤

064

[A]에서 대상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은?

- 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 포화에 이지러진 / 도론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 김광균, '추일서정'
- ②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 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 분분한 낙화…….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 할 때 - 이형기, '낙화'
- ③ 가을연기 자욱한 저녁 들뜬으로 /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 김광규, '상행'
- ④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만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꺾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이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을 들읍시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맛맛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 박용래, '월훈'
- ⑤ 아, 여기 누가 / 죽음 위에 우리의 꽃들을 피게 하나. / 얼음과 불꽃 사이 / 영원과 깜짝할 사이 / 죽음의 깊은 이량과 이량을 따라 / 물에 젖은 라일락의 향기 / 저 파도의 꽃 떨기를 7월의 한때 / 누가 피게 하나. - 김현승, '파도'

②

06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하찮은 사물에도 쉽게 슬픔을 느끼는 마음
- ② ㉡ : 전과 다름이 없다.
- ③ ㉢ : 공간적으로 사이가 뜨다.
- ④ ㉣ : 가을 바람이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 ⑤ ㉤ : 완성귀 따위가 무성하다.

②

[066-07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복궁에 불일이 생겨 들어설 때마다, 한기운데 높이 솟아 있는 국립 중앙 박물관의 돌층계부터 바라보게 된다. 반듯하게 누워 있는 가지런한 돌층계,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올라와 보라고 하는 것 같아, 자꾸 눈길이 끌린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지만, 돌층계가 날 시험해 보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층계가 시험해 볼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공상(空想)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 평소의 내 생활 의식 때문이라. 성실(誠實)하지 못했던 생활 의식의 탓이 아니라.

많은 층계를 우리는 밟고 오르며 산다. 층계를 밟고 오를 때마다 그것은 내게 삶의 계단으로 떠올라, 헛디딜세라 조심이 된다. 어차피 인생은 끝이 있는 층계를 딛고 올라서며 사는 것이다. 한 층에 한 걸음이 맞도록 계단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두 단, 세 단씩 뛰어 오르려는 충동을 느껴 왔었다. 이렇게 서두르거나 남보다 앞서려거나, 또는 남을 밀치고 먼저 나서려는 데서 헛디는 실수나 넘어지는 확률은 커지게 마련이다. 한 층에 한 걸음, 한 발짝씩 밟아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두 층, 세 층을 한꺼번에 건너뛰어 밟으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 추락이나 도중 탈락(脫落), 도중 하지를 해 왔던가?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 살려고만 허둥거리며 살아 왔다. 차근차근 한 층, 한 층 밟아야만 할 과정을 다 밟고 올라가는 성실한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기는 눈길로 바라보거나, 또는 ㉡약삭빠르게 잔재주로 알지르려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았었다. ㉢얼마나 높게 오르느냐 하는 것만을 고개 들어 쳐다보았기에, 쉽게 오르려 했었다. 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르려는 욕심 때문에, 남을 제치거나 딛고 올라서려 했었다. 끝이 있는 삶의 계단에 얼마나 높게,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이제야, 힘이 드는 나이에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립 중앙 박물관의 높은 돌계단이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내 삶의 성실성을 시험해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야, 내 삶의 계단을 얼마쯤 올라서서, 지금 내가 선 곳이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층계를 밟아 오르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차근차근 제대로 밟을 읊조리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다리에 힘주고 무릎을 짚어 가면서 이마의 땀을 씻게 되니, 한 층, 한 층 올라 딛고 서는 그 힘겨움에서 과연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이제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밀쳤는지,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뒤에서 남 보기에 흉하도록 같지(之) 자로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

어렸을 적, 고향의 돌층계에서 동무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누가

EBS 300제 산문

먼저 오르나를 놓고 삼 싸우듯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도, 기을 어저 비기는 햇살에 그림자가 길어지면, 들층계에 꺾여진 그림자 밟기를 하면서 놀았었다. 누가 많이 이겨 들층계에 먼저 올랐든 간에, 그림자가 길게 들층계에 늘어지게 되면,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 없이 내려와 그곳을 떠났었다.

지금 내 삶의 층계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의 계단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다만, 인생의 해가 지게 되면 미련 없이 비켜서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맑게 되어 있는 층계 한 단계를 딛고 맑아 올라서면서 다리가 무겁도록 힘이 들어도, 되도록 성실하게 내딛는 바로 그 때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결국 보람의 전부(全部)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유경환, '들층계'

066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
- ②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를 지녀야 함.
- ③ 말만 앞세우기보다 먼저 실천을 해야 함.
- ④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반성해야 함.
- ⑤ 편견을 지니지 않고 남의 의견을 잘 수용해야 함.

①

067

위 글의 글쓴이가 주로 비판할 인생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는 없지요.
- ② 세상을 살다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알마든지 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③ 상황에 따라서는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잣밥에 관심을 둘 수 있는 법이지요.
- ④ 달던 삼키고 쓰면 빨는 방식도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⑤ 한강에서 뽕 맛과 종로에서 눈 흘긴다고,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를 할 수 있죠.

①

068

㉠-㉣ 중 대상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 ④ ㉣ ⑤ ㉤

④

069

위 글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대상을 인간의 삶의 모습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다.
- ③ 상황을 가정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심화시키고 있다.
- ④ 생활 주변의 소재를 바탕으로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사물 행위에서 추상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③

070

위 글을 읽고 나서 <보기>의 시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을 만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
 철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
 길가의 과일 장수나 생선 장수를 보지 못하고
 이쁜 얘기를 엮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 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너의 눈은 빨라지고
 너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앞으로 기름값이 또 오르고
 매연이 눈앞을 가려도
 너는 차를 두고
 걸어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 김광규,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 ① 현대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은 유지하도록 하자.
- ②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주된 정서로 드러내자.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교훈적 의도를 좀더 명확히 드러내자.
- ④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도록 하자.
- 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일방적 통념이 지닌 허구성을 비판하도록 하자.

①

[071-07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자(李子)가 남으로 한강을 건너는데, 함께 건너는 또 한 배가 있었다.

배의 크기도 같고 노꾼의 수효도 비슷했으며 실은 인마(人馬)의 수도 거의 같았다.

잠시 후에 보니, 한 배는 뜨자마자 나는듯하여 이미 저쪽 언덕에 닿았는데, 내가 탄 배는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았다. 까닭을 물은즉 “힘껏 저었기 때문이오.” 했다. 나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고 인하여 탄식하기를, “아아, 하찮은 작은 배 한 척이 물에 건너는 데에도 뇌물의 있고 없음에 따라 그 나아감이 빠르고 더디며 앞서고 뒤서

EBS 300제 산문

는데, 하물며 벼슬의 넓은 바다를 다투며 건너는 데 있어서라. ㉠돌 아모배 내 손에 돈 한 푼 없으니, 지금까지 얇은 벼슬 하나 하지 못한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했다. 다른 날에 보고자 써 둔다.

- 이규보, '주뢰설(舟路說)

(나)

장생은 집을 지으려고 산에 들어가 재목을 구하였는데 백백이 들 어간 나무들 모두가 구불구불하게 비틀어져 용도에 맞지 않았다. 그 런 가운데 산 속에 있는 무덤 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옆에 서 보아도 곧바로 왼쪽에서 보아도 쪽 뻗었으며 오른쪽에서 보아도 곧기만 하였다. 그래서 좋은 재목이라 생각하고는 도끼를 들고 그쪽 으로 가서 뒤에서 살펴보니 슬쩍 구부러져 쓸 수 없는 나무인 것이었다.

그래서 장생은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하기를,

[A] “아, 재목이 될 나무를 얼른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 고르기가 용이한 법인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다른 쪽에서 살폈어도 쓸모 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 용모를 그럴 듯하게 꾸미면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 말을 들어 보며 조리가 정연하고 그 용모를 살펴보면 선량하게만 여겨지며 사소한 행동을 관찰해 보아도 삼가며 몸을 단속하고 있으니 영락없이 군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급기야 큰 번고를 당해 절개를 지켜야 할 대에 가서는 본래의 정체를 여지 없이 드러내고 만다. 국가가 결판나고 위태로워지는 것은 늘 이런 자들 때문이다.

대저 나무의 성장 과정을 보건대, 소나 염소가 짓밟지도 않고 도끼나 자귀에 의해 해침을 받지 않는 채 비와 이슬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 나가기 쭉쭉 뻗어 곧게 올라가야 마땅할 것인데도 그만 이토록까지 구부러져 쓸모 없이 되는 경우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물욕이 참된 성품을 혼탁하게 하고 이해 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한 나머지 천성이 왜곡되어 본래의 모습에 일탈된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별나게 행동하며 속임수를 쓰는 자가 많고 바로고 곧게 행동하는 자가 적은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하고는 마침내 이 일을 장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장자가 대답하였는데, 그 말이 이리하였다.

“관찰력이 대단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나 역시 해 줄 말이 있다. 홍범에서 오행을 논할 때 목(木)에 대해서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고(曲) 바르다(直) 하였다. 그리고 보면 나무가 굽었을 경우 재목으로 쓸 수 없을지 몰라도 속성으로 볼 때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의 속성이 바르기만 하니 바르게 행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요행히 면한 것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죽음을 면하는 것 역시 요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가 구부러졌을 경우 비록 보잘 것없는 목수라 하더라도 가져다 쓰는 법이 없지만, 사람이 곧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정치를 잘 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다. 자네도 큰 건물을 한번 보게나. 마룻대나 기둥이나 서

까래는 말할 것도 없고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할 경우에도 구부러진 재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번에는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과 사대부로서 화려한 관복을 입고는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치고 바른 도를 소유한 자는 보기 힘들다. 이처럼 구부러진 나무를 늘 불행하지만 비뚤어진 사람은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

- 장유, '곡목설(曲木說)

071

(가), (나)와 연관지어 <보기>의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唐) 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한 후 ‘토황소격문’ 등으로 문명을 떨치던 최치원은 국운이 기울어 가는 신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정치 개혁과 관련한 여러 시책을 건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가야산에 은둔했다고 한다. 최치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是非)하는 소리 귀에 들릴새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제가야산독서당'

- ① 최치원과 (나)의 '장생'은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대조적이다.
- ② (가)의 '이자', (나)의 '장자', 최치원의 현실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 ③ 최치원도 (가)의 '이자' 처럼 권력의 잘못된 속성에 의해 소외된 인물이었다.
- ④ 당대의 신라에도 (나)에서처럼 '바른 도를 소유한 자를 보기'가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의 시는 (나)의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에 대한 감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072

(나)에 나타난 '장생'과 '장자'의 대화 양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장생은 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장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장생과 장자는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상반된 관점을 보이고 있다.
- ③ 장생이 지적한 현상에 대하여 장자는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장생이 피력한 주장에 대하여 장자는 충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⑤ 장생은 현실적 관점을 보이고 있고, 장자는 이상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③

073

[A]에 나타난 화자의 생각을 빗대어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은?

- ① 산이 높으면 그늘도 많다.
- ②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③ 개 못된 것은 들에 나가 쫓는다.
- ④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 ⑤ 물은 건너 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 봐야 안다.

⑤
074

<보기>에서 K가 ㉠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과 같은 말하기 태도를 취하여 말한다고 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동년배인 우리 둘은 늘 친척간에 비교 거리가 되었었다. 그리고 나의 평판이 항상 좋지 못했다.

“T는 돈을 알고 위인이 진실해서 그 애는 돈푼이나 모을 것이야. 그러 나 K(내 이름)는 아무 짝에도 못 쓸 놈이야. 그 잘난 언문 섞어서 무어라고 끄적거리 놓고 제 주제에 무슨 조선에 유명한 문학가가 된다니! 시러베아들놈!”

이것이 그네들의 평판이었다. 내가 문학인지 무엇인지 하는 소리가 까 닭 없이 그네들의 비위에 틀린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그네들의 생 일이나 혹은 대사(大事) 때에 돈 한푼 이렇다는 일이 없고 T는 소 위 착실히 돈벌이를 하여 가지고 국수밥소래나 보조를 하는 까닭이 다.

㉠ “얼마 아니 되어 T는 잘 살 것이고 K는 거지가 될 것이니 두고 보 아!”

- 현진건, '빈처'

- ① '아무리 그래 보라지, 내 눈 하나 깜짝 안 할 테니…….'
- ② '영망진창이군. 기왕 이렇게 된 것 이제 될 대로 되라지.'
- ③ '늦북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 ④ '모두가 다 내가 변변치 못해 그런 것인데 누굴 탓하겠는가.'
- 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군. 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으련만…….'

④
075

<보기>의 관점에서 ㉠에 나타난 '목수'의 태도를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 절한 것은?

보기

“집을 지을 때 큰 나무는 대들보로 올리고, 작은 나무는 서까래로 만 들어서 재목에 따라 알맞게 쓰는 것은 훌륭한 목수의 능력시오. 길 고 좋은 나무만 골라 쓰고, 짙고 굵은 것은 버리는 것은 졸렬한 목 수의 행위지요. 인재도 나무와 마찬가지로. 인재를 구하면서 그 재목을 가다듬지 않는 것은, 3년을 굶으면서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 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소.”

- ① 본래 훌륭한 인재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입니다.
 - ② 인재 한 사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 ③ 인재를 공정하게 가려 뽑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 ④ 인재는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가꾸는 것입니다.
 - ⑤ 인재의 출현이 시급한 때가 되면 인재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 ④

[076-08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른바 규중 칠우(閩中七友)는 부인내 방 가운데 일곱 벗이니 글 하는 선비는 필묵(筆墨)과 조희 벼루로 문방 사우(文房四友)를 삼았 나니 규중 년젠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이러므로 ㉠침선(針線) 돕는 유를 각각 명호를 정하여 벗을 삼을새, 바늘로 세요 각시(細腰 閩氏)라 하고, 척을 척 부인(戚夫人)이라 하고, 가위로 교두 각시(交 頭閩氏)라 하고, 인도로 인화 부인(引火夫人)이라 하고, 달우리 울 량자(熨娘子)라 하고, 실로 청홍흑백 각시(靑紅黑白閩氏)라 하며, 골모로 감토 할미라 하여, 칠우를 삼아 규중 부인내 아츰 소세를 마 치매 칠위 일제히 모혀 중시 하기를 한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일위 내는지라.

일일(一日)은 칠우가 모여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 부인이 긴허리를 자히며 이르되,

“제우(諸友)는 들으라. 나는 세명지 굵은 명지 백저포 세승포와, 청홍 녹라 자라 홍단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 옷을 마련할 때, 장 단 광협(長短廣狹)이며 수품 제도(手品制度)를 나 곧 아니면 어찌 이 루리오. 이러므로 의지공(衣之功)이 내 으뜸되리라.”

교두 각시 두 다리를 빨리 돌려 내달아 이르되,

“척 부인아, 그대 아무리 마름질을 잘 한들 베어 내지 아니면 모 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 마라.”

세요 각시 가는 허리 구부리며 날랜 부리 돌려 이르되,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겐 후에 구슬이 라 할 것이니, 재단에 능소 능대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 를 어찌 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짧은 술 긴 옷을 이름이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어찌 잘게 뜨며 글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 이 제어 내고 교두 각시 베어 낸다 하나 나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슨 공이라 자랑하느냐.”

청홍 각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여 노 왈,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무리 착한 체하나 한 술 반 술인들 내 아니면 네 어찌 성공하리오.”

감투 할미 웃고 이르되,

“각시님네, 웬만히 자랑 마소. 이 늙은이 수말 적기로 아가씨 베 손부리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와 드리나니 옛말에 이르기를, 닭 의 입이 될지언정 소 뒤는 되지 말라 하였으니, 청홍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말 하시느냐. 실로 얼굴이 아깝구나. 나는 매 양 세요의 귀에 찔렸으되 낮기죽이 두꺼워 견딜 만하고 아무 말도 아니 하노라.”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閩中七友爭論記)'

(나)

오케스트라와 같이 하모니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서는 한 멤버 가 된다는 것만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각자의 맡은 바 기 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기여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 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 나, '내' 가 아니요 '우리' 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약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EBS 300제 산문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無音)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구 팀의 외야수(外野手)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켈소'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도,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짙짙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전원 교향곡 제3악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를 바순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의 바순 연주자의 기쁨을 나는 안다.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은 카운터 뒤에 있는 약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들기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자기를 향하여 힘차게 손을 흔드는 지휘자를 쳐다볼 때, 그는 자못 무상(無上)의 환희를 느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공작에 출치는 작은 자로 교향악단을 지휘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후 지휘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 토스카니니가 아니라도 어떤 존경받는 지휘자 밑에서 무명(無名)의 플루트 연주자가 되고 싶은 때는 가끔 있었다.

-피천득, '플루트 연주자'

07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고, (나)는 사물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 ② (가)는 엄숙한 어조로 일관하고 있고, (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잔잔한 해학을 담고 있다.
- ③ (가)는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소재를 취하였고, (나)는 작자 자신의 내면 정서를 작품화하였다.
- ④ (가)는 일정한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였고, (나)는 성격이 이질적인 여러 사건을 나열하였다.
- ⑤ (가)는 인간 세태의 부정적 측면을 풍자하였고, (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유추의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⑤

077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어떤 현실'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문학이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고 할 때, 조선 후기에 쓰인 이 작품은 그 소재의 종류와 성격, 각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의인화된 인물들의 태도로 보아 당시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① 새로운 형식의 출현을 바라는 문학적 자각
- ② 허례 허식에 대한 양반 계층의 자각과 반성
- ③ 유교적 도덕 의식의 쇠퇴로 인한 사회적 혼란
- ④ 남성 중심의 사회에 일기 시작한 여성의 의식 변화

⑤ 반상의 차별로 인하여 억압받던 평민 의식의 신장

④

078

밑줄 친 인물의 태도 중, (나)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인식과 유사한 면이 엿보이는 것은?

- ① 축구 선수인 내 친구는 축구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하다. 이상적인 축구 선수가 되려면 기술 못지 않게 신체 각 부위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 ② 내 동생은 천천적인 신체 장애가 있지만, 나약하지 않다. 나는 늘 동생을 안쓰럽게 여겨 뒤통지 도와 주려고 하지만 동생은 이를 거부한다. 아무리 힘든 일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 ③ 그는 세계적인 감독으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매력 만점이다. 결코 배우나 스태프 앞에서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말단 조수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까지도 잊지 않고 챙겨서 감동을 주곤 한다.
- ④ 나는 태릉선수촌 주방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존경한다.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결근하는 일이 없다. 국가 대표 선수들의 건강이, 나이가 서는 대한민국의 체력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며 자부심이 대단하다.
- ⑤ 우리 반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여 학습의 모든 곳은 일도 척척 해낼 뿐 아니라,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오락이면 오락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이다. 그래서 급우들과 선생님의 신망이 매우 두둑다.

④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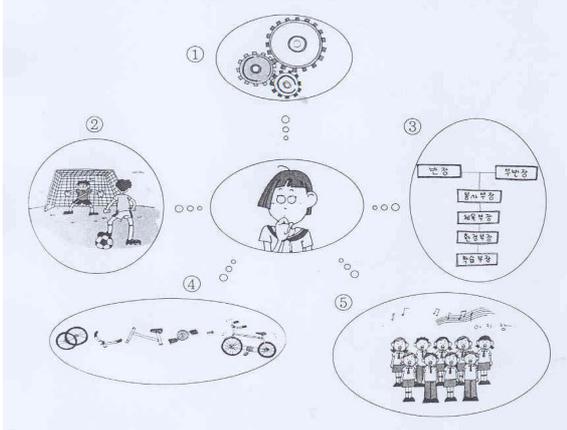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과 유사한 방식으로 붙여진 것은?

- ① 아니, 꼬맹이와? 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높은 줄만 알아, 키는 작고 똥똥하기만 한 꼬맹이. 무던히 새침테기였다. 그것이 알미 워서 덕재와 자기는 반반이 놀려서 울려주고 했다. 그 꼬맹이한테 덕재가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다. - 황순원, '향'
- ② 뒹둥에 연필을 꽂은 채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뺨의 눈갈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며 들던 흑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 굵은 침방울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애초 자기 눈 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것이 인정할 수 없다며 막 무가내였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③ 아다다는 병어리였던 것이다. 말을 하렘(하러 할) 때에는 한다는 것이, 아다다 소리만 연거푸 나왔다 어찌어찌 가다가 말이 한마디씩 제법 되어 나오는 적도 있었으나 그것은 쉬운 말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이것을 조롱 삼아 확실이라는 뚜렷한 이름이 있었지만, 누구나 그를 부르는 이름은 아다다였다. - 계용목, '백치 아다다'
- ④ 어저께의 최종 퀘즈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일투의 희망을 던져 주는 것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역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마 스텐코프 소좌라고 했지.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또오루 독또오루 하고 고새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감 같기만 했다. - 전광용, '꺼삐딴 리'
- ⑤ 생김생김으로 보아서 얼굴이 쥐와 같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으며 눈에는 교활함과 독한 기운이 늘 나타나 있으며, 발룩한 코에는 코털이 밖으로까지 보이도록 길게 났고, 몸집은 작으나 민첩하게 되었고, 나이는 스물 다섯에서 사십까지 임의로 볼 수 있으며, 그 몸이나 얼굴 생김이 어디로 보든 남에게 미움을 사고 근접치 못할 놈이라고 느낌을 갖게 한다. <중략> 어느덧 XX촌에서는 익호를 익호라 부르지 않고 '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김동인, '붉은 산'

EBS 300제 산문

②
080

(나)를 감상한 학생이 자유롭게 연상한 것으로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것은?



②
[081-08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반 : (기분이 좋아서 혼자서 춤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모르며) 아니? 저런 망할 년의 요부(妖婦)가? 어흠 어흠.
부네 : (양반의 기침 소리에 다시 양반에게 간다.) 양반 내 여기 있잖나.
양반 : (㉠) 오냐 오냐.
부네 : (양반과 어울려 춤을 추다가 선비를 본다.)
선비 : (부네와 눈길이 마주치자) 아니, 저런 요망한 계집년 봤냐? 에헴 에헴.
부네 : (다시 선비에게 간다.)
양반 : (그 광경을 보고) 아니, 저놈의 선비가? 윽거니 ㉡여보게 선비, 이리 줌 오게. 저길 보면 좋은 구경이 있네.(선비에게 마을 쪽을 가리키고 나서 부네에게 간다.)
선비 : (양반이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없자 돌아서서 놀라며) 아니 저놈의 양반이? (양반에게 간다.) 여보게 양반, 이리 오게. 저기에서 각시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
부네 : (선비와 양반을 바라보며) 호호호, 내 때문에 저래 싸우는 구나.
양반 : (선비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며) 아니, 저놈의 선비가? 나를 속여? 여보게 선비,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선비 :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 아니, 그럼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초랭이·이매 : (자기 상전의 세도 자랑을 흥내낸다.)
양반 : 암 닳고 말고.
선비 : 뭣이 나아, 말해봐.
양반 :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
선비 : 뭐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양반 : 허허, 팔대부는 또 뭐야?
선비 :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 : 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거던.
선비 : 아 - 문하시중 그까짓 거? 우리 아버지 바로 문상시대(門上侍大)인데…….
양반 : 문상시대! 그건 또 뭐야?
선비 : 문하(門下)보다는 문상(門上)이 높고 시중(侍中)보다는 시대(侍大)가 크단 말일세.
양반 : 그것 참 별꼴을 다 보겠네.
선비 :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양반 : 그러면 무엇이 또 있던 말인가?
선비 : 첫째 학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네.
양반 : 뭣이,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선비 : 도대체 팔서육경은 어디 있으며 대관절 육경은 또 뭐야?
초랭이 : (방정맞게 양반과 선비 사이로 뛰어들며) 헤헤헤, ㉢나도 이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까? 팔판대장경, 중의 비래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처녀 월경, 머슴의 쇠경.
이매 : 그거 다 맞아.
양반 : (호탕한 표정으로) 이것들도 이는 육경을 선비라는 자가 몰라?
선비 : (혀를 차며) 우리 싸워야 피장파장이니 그러지 말고 부네나 불러 보세.
부네 : (양반과 선비가 자기 때문에 싸우는 모양을 지켜보다가 호들갑스런 춤을 추며 나온다.)
양반, 선비 부네가 어울려 춤을 춘다. 양반이 춤을 추면 선비가 양반을 밀치고 부네를 껴안듯이 자기 쪽으로 데리고 가서 춤을 추고, 양반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

-작자 미상, '하회별신굿 탈놀이'

081

위 글에서 <보기>의 표현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한 것은?

보기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풍자(諷刺)'의 기법은 웃음을 동반하는 '현실 드러내기'로 볼 수 있으며, 빈정거림, 조소와 비꼼, 의도를 숨긴 웃음, 차가운 웃음, 공격성을 띤 웃음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인간 생활 전반에 대해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사회적 결함, 악덕 등을 비꼬는 공격성을 드러낸다. 그 바탕에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비판하고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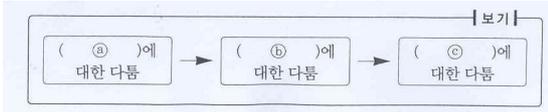
- ① 인물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써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인물들의 이중적 속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위선적 속성이 자연스럽게 폭로되고 있다.
- ④ 다른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 인물들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감추어진 위선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③

EBS 300제 산문

082

<보기>는 위 글에 나타난 갈등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할 것은?



- | | | |
|-----------|---------|--------|
| ㉠ | ㉡ | ㉢ |
| ① 가치관의 차이 | 학식의 우열 | 외모의 우열 |
| ② 사랑의 획득 | 가문의 우열 | 학식의 우열 |
| ③ 이권의 확보 | 사랑의 획득 | 학식의 우열 |
| ④ 사랑의 획득 | 가치관의 차이 | 가문의 우열 |
| ⑤ 가치관의 차이 | 이권의 확보 | 학식의 우열 |

②

083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을 내저으며 두려운 듯이 ②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듯이
 ③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이 ④ 몸을 늘어뜨리며 허탈한 듯이
 ⑤ 어깨를 움찔하며 깜짝 놀란 듯이

②

084

㉠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려는 것이다.
 ② 상대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③ 상대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려는 것이다.
 ④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⑤ 상대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려는 것이다.

④

085

말을 엮어 나가는 방식이 ㉡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여필종부(女必從夫)라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뺨덕 할미가 열너도 더 되고 백너로구나 백너.
 ② 신 것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애를 낳으면 그놈의 자식이 시쿤둥하여 시 건방지지 않을까 몰라.
 ③ 하나 치면 하나 굶고, 둘 치면 둘 굶고, 무식하고 돈 없는 놈 술집 벽에 술값 굶듯 그어 놓는구나
 ④ 밤낮 주야로 오매불망, 올망졸망 기다리던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비렁뱅이 거지신세되어 와 버렸다.
 ⑤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 전에 백반인지 하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③

[086-09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11장 한영덕의 고별식

서학준 :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확실한 배경이나 사리판단

에 밝아야 하는 법인데 한 군은 고집덩어리였어요.

한영숙 : 오라버니에게 평생 본의 아니게 반동이다 적색이다 등의 낙인이 찍혔었어요. 한번도 억울한데 몇 번씩이나 견디기 어려운 울 가미가 씌어졌어요. 집을 나간 것도 지방 대학에서 기숙사 관리인 노릇하다 잠적해 버리신 것도 아는 사람만 만나면 옛날 일이 되살아서 괴로우셔서 그랬을 거예요.

한혜자 :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진작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에게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것뿐이에요. 저의 출생부터가 그렇구요. 저는 주경병이 고용의사와 월남 미망인 사이의 우열한 만남에서 나온 그야말로 ㉠밀두 끝두 없는 개똥 참외예요.

박 노인 : (결절 웃으며) 개똥참외라 허허허 거 말이 좋구만. 오히려 개똥참외가 빛깔 좋은 것보다 맛은 더 나은 법이지. 우리 자식들도 지금 살아 있으면 그런 말을 할까? 이봐요, 선생. 난 난리통에 자식 둘을 잃었소. <중략>

서학준 : 거 참 기구하십니다. 피난도 안 가시고 계속 사셨다면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박 노인 : 다 잊어 먹고 살았었지요. 한씨가 나타나서부터 옛날 생각이 자꾸 되살아났었지요. 이젠 한씨도 먼져 떠났으니 또 잊고 살아야지요.

한혜자 : 그 일들이 옛날 얘기도 아닌데 쉽게 잊혀지나요? 나는 아버지에게 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날마다 허리를 앓거나 날마다 폭음을 하던 술꾼이라는 기억뿐이에요. 나는 자라나는 동안 양친의 일가 친척 집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구 살았어요. 어느쪽에서든 혈육의 대접을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달랐던 진용이 오빠 하구는 사이가 좋았지만 진용 오빠는 아버지를 미워했죠.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더니 커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구요, 사실 그럴 만두 했어요. 그는 독립 호적을 갖구 있었으니까요. 나한테 아버지의 얘기를 꺼낼 적에도 진용 오빠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런 게 모두 우스웠어요.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아버지를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죠. 아버지는 식구들과 말도 건네지 않고 항상 골이 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술이 깨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술으로 두 귀를 꼭 틀어막구 지냈어요. <중략>

한영숙 : (홀짝인다) 넌 모른다.

박 노인 : 전쟁을 못 겪은 아가씨는 모든 것이 억울하고 안타깝게 느껴질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선 멋모르게 죽어간 삶이 더 많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더 고생스러운 법이지요. 잊지 않으면 어찌겠소? 누가 보상에 준답니까?

서학준 : 너희 아버지는 보기 드물게 고집이 센 사람이었다. 난 판에는 사리판단이 밝다고 자처해 왔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남았겠지만 너희 아버진 그 고집이 이 암울했던 세상과 맞부닥치면서 한 번도 펴 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거야. 그런데 나 한 번도 너희 아버지의 고집을 탓해 본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보면 듬직한 고집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죄라면 한 군은 세상을 잘못 태어났지.

한영숙 : 글쎬요. 그렇다면 전쟁 때문에 덕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나서 그런가요? 오라버니는 융통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 네가 사내아이가 아닌 게 다행스럽기두 하다. 우리네 여자들은 그저 슬퍼두 참구 살면 되지만 남자들이야 어디 그러냐. 눈치도 봐야 되구 싸움도 해야 되구 가만히 있겠다해도 싸움 나면 이쪽 저쪽에서 그냥 놔두질 않는다구.

EBS 300제 산문

서학준 : 아 요새 세상이야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화된 셈이죠. 한 군에게 그간 수많은 낙인이 찍힌 셈이지만 이제 그것을 다 벗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 편한 곳에 가게 해 주면 됩니다.

한혜자 : 아무리 편한 곳에 간다고 해도 편하게 살지 않았던 이야기는 남겠지요. 고모가 큰 아이에게 아버지 얘기해 준 것처럼 저도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얘기를 전하겠어요. 모두가 지난 날의 얘기를 과거지사로만 돌리고 싶겠지만 전 제 자식들이 개똥침외의 후예가 되게 하긴 싫어요. 아무리 부끄럽고 괴로운 얘기라 해도 그것을 지나가 버린 과거지사로 돌리고 싶지 않아요. (음악) 한영덕 씨가 사망했다는 전보를 받고서도 나는 울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그이가 내포했던 시대를 새롭게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길고 지루한 고별식은 이제 끝나야겠어요. 한영덕 씨는 그의 시대와 더불어 캄캄한 어둠속에 박제될 거예요. 저, 정지된 폐허 가운데 들꽃과 잡초에 뒤덮여 쓰러진 **㉠**늙은은 기관차처럼 그의 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만가를 다시 한 번 들려주세요.

(음악이 고조되면서 막 노인 서서히 일어나 만가를 부른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한혜자, 촛불을 불어 끈다. 청진기와 수첩을 양 손에 들었다. 한영덕의 영정 앞에 조용히 엎드려 절한다.)

-황석영 원작 / 오인두·김석만 각색, '한씨 연대기'

08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 간의 갈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본질적인 속성이 제시되고 있다.
- ③ 풍자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인물의 성격을 과장함으로써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087

다음은 위 글을 대본으로 한 연극 공연에 대한 감상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④

088

위 글에 제시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학준 : 한영덕의 삶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② 한영덕 :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상과 융합하려고 하지 않았다.
- ③ 한영숙 : 오빠의 불행한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한혜자 : 아버지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⑤ 막 노인 : 한영덕의 정신적 영향으로 가치관에 변화를 일으켰다.

⑤

089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뜻하지 않은 행복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존재
- ② 경제적 빈곤 상태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존재



- ㉠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을 거치며 힘을 앞세운 이데올로기의 강요 앞에서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 전쟁은 오래 전 끝났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 근본은 변하지 않아 '우리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피난민'임을 깨닫게 했다.
- ㉢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존재 가치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주었다.
- ㉣ 한영덕이라는 실향민은 현실 사회와 갈등을 겪다가 죽음을 맞이 직전 주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세상과 화해하게 된다.
- ㉤ 그러나 현실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며 여전히 비주류로서 살아가는 한영덕의 자녀들 모습은 그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③ 전통 문화와 새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존재
- ④ 자기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로 세상에 버려진 존재
- ⑤ 타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단절된 존재

④

090

<보기 1>의 설명을 참조할 때, <보기 2> 중 ㉠과 유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시어로 적절한 것은?

■ 보기 1 ■

작가는 한영덕의 죽음으로 분단의 고통이 끝났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분단의 고통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정지된 폐허에 쓰러진 '늙은은 기관차'와 같다. 이는 아픔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현실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다.

■ 보기 2 ■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이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高句麗) 같은 정신도 신라(新羅)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意味)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있지 못할 광장(廣場).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休息)인가, 아귀어가는 이야기뿐인가. -박봉우, '휴전선'

- ① 화산 ② 꽃 ③ 고구려 ④ 하늘 ⑤ 광장

⑤

EBS 300제 산문

[091-09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93. 판사 거실

여왕 의자에 앉은 환유

환유 : 정인아. / 공부하고 있던 정인, 고개 들며,

정인 : 응? / 의자에 앉아 있는 환유 너머로 정인이 보인다.

환유 : 그 편지 좀 읽어 줄래?

정인 : 무슨 편지?

환유 : ㉠즐거운 편지……. / 정인이 환유 곁에 앉아 시를 읽는다.

정인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피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는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정인의 손을 꼭 잡는 환유/ 정인, 환유를 한 번 바라본다.

정인 계속 시를 읽는다.

정인 :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눈감은 환유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른다.

정인(E) 한없이 잇닿는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환유를 보는 정인의 표정. / 정인 너머 환유.

정인(E)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눈물 흘리는 정인.

정인의 손을 잡고 있던 환유의 손이 힘없이 풀며 떨어진다.

눈물 흘리며 시를 읽는 정인.

정인 :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S# 95. 수목원 초원

환유의 장례식. 정인의 허망한 표정, 유골을 초원 위에 뿌린다. / F.O.

S# 96 판사 거실+주방

침대 위에 앉아있는 정인, 멍하니 앉아 있다. 어지러운 집안. 물이 끓는다. 식탁 의자에 쪼그리고 올라앉아 있는 정인. 두 개의 잔에 커피를 따르다가 멈칫하는 정인. ㉡일그러지는 정인의 표정.

S# 97 거실

정인 손으로 문을 열고 약초병을 집어 바라본다.

정인(E) 사랑이란 언제나… / 유서를 쓰는 정인의 손.

정인(E)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

정인, 독약병을 앞에 놓고 유서를 쓰고 있다.

정인(E) 지금 나는 내 사랑, 그 깊은 뿌리를 보고 있다.

환유 수첩 속에 밝게 웃고 있는 정인의 사진이 들어 있다.

수첩을 집어 상자에 넣고 환유의 결혼 반지를 끼워보는 정인.

정인(E) 서로 낮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짧은 시간을 나눈 사랑의 깊이가 이토록 크고 감당하기 벅찬 것일…

국기 게양대의 키셔츠를 반듯하게 접어 환유 옷가지와 함께 포개어 놓는 정인.

정인(E) …줄은 미처 몰랐다. 이제 나는 그 사랑의 버거움을 혼자

감당할 길 없어 그를 찾아 떠나려 한다.

여왕 의자에 가만히 앉아보는 정인.

정인, 조용히 일어나 시계추 잡으면

거실 밖으로 비어있는 국기 게양대가 보인다.

S# 103 거실

병일과 명호 / 병일 : 며칠째 먹지도 않고 있었나 봐요.

명호 : 같이 올라갑시다, 정인씨. / 허탈한 정인과 명호 처

명호 처 : 그러는 게 좋겠어요.

S# 104 판사 마당

명호와 명호 처, 정인을 데리고 나와 정인을 태운다.

명호 : 없는 동안 가끔 좀 들여다 봐 주세요.

병일 : 염려 말아요. / 명호 처 : 그럼 안녕히 계세요.

병일 : 예. 여기 걱정말구 잘 좀 돌봐 주세요.

차 떠난다. 명호 처 우편함 쪽을 보더니 뭔가를 발견하고

명호 처 : 명호 씨 잠깐만. 편지가 와 있네.

명호 처 편지를 꺼내 차에 다시 탄다.

[A]

S# 105 국도, 달리는 명호 차 안

명호 처, 편지를 정인에게 준다.

명호 처 : 정인 씨한테 온 거예요. 읽어 봐요. 명호 씨, 어디로 가야 빨라, 응?

운전하고 있는 명호.

명호 : 어, 이 길이 지름길이야.

S# 106 달리는 차 안

편지를 읽다 놀라는 정인

환유(E) 정인아, 나야. / 수없이 불러왔던 이름이지만 새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예사롭게 부를 수가 없어. 당신한테 처음 쓰는 편지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

정인이 읽고 있는 편지.

환유(E)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아보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정인, 편지를 읽다가 울음이 새어나온다.

환유(E) …좋을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하려는 말들을 당신 옆에서 얘기할 수만 있다면…

S#115 초원

여전히 푸른 환유 소나무 앞에 다가선다.

그리고 환유의 소나무를 끌어안듯이 안는다.

정인(E)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당신이 왜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지. 이제 누가 대신 보내 주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언젠가 끝나게 되겠지만 나, 당신 편지 기다릴게.

S# 116 판사 화장실

세면대 위로 떨어지는 독약병의 내용물. 불에 타는 유서

S# 117 판사 거실

벽의 괘종시계, 다시 움직이고 있다.

EBS 300제 산문

S# 125 역무원실

역장, 정인에게 소포 하나를 내린다.

역장 :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
요.

이게 마지막 편집니다.

-조환유, '편지'

091

위 글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스텝과 각 배역을 맡은 연기자에게 주 문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95의 장례식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극대화합니다.
- ② S#96의 정인은 초췌한 얼굴에 초집 잃은 눈, 뉘 나간 듯한 모습을 잘 살려 냅니다.
- ③ S#103의 명호, 명호 처, 병일은 정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안쓰러움이 묻어나야 합니다.
- ④ S#105의 정인은 편지를 뜯을 때 다소 거칠면서 미세한 손 떨림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 ⑤ S#106의 정인은 편지를 보며 소리 죽여 흐느끼는 모습에서 애절함이 우러나야 합니다.

④

092

'S#97'에서 주인공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을 '동작 중 컷' 기법으로 촬영하고자 한다.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자연스럽게 않은 장면은?

보기

선생님 : 오늘은 '동작 중 컷(cutting on action)'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탐정 사무소를 찾은 주인공이 탐정에게 사건 의뢰를 끝낸 후 방을 나가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앉아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 후, 이미 문을 나서는 주인공을 보여 준다면 그 사이의 행위는 일치하지 않는 셈이죠. 그렇다고 일어나서 문까지 걸어가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일일이다 보여 주는 것 또한 시간 낭비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인공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에 한번 멈추고, 또 막 문고리를 잡으려는 손을 보여 준다면 그 사이 공간을 통과하는 모습이 생략되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④

09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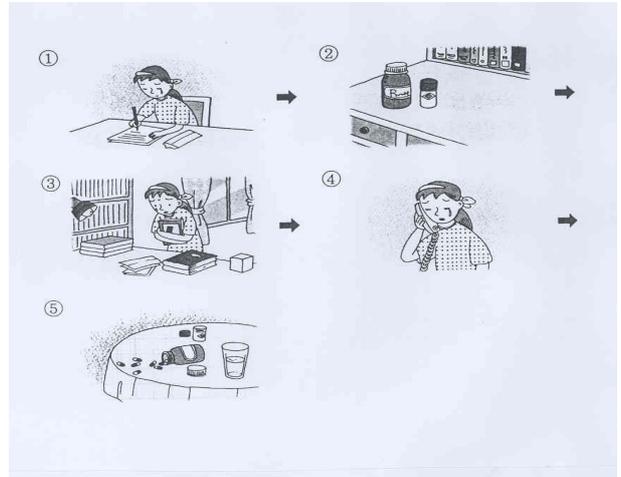
- ① 정인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뚜렷이 추리할 수 있다.
- ② 약병을 활용하여 정인의 내면적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 ③ 깨종시계를 통하여 정인의 변화된 삶의 자세를 암시해 준다.
- ④ 잦은 공간 이동을 통하여 복잡한 사건 전개 과정을 드러낸다.
- ⑤ 정인의 독백에서 그녀의 마음이 웬만큼 정리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④

094

작품 속에 반영된 ㉠의 의미나 역할을 잘못 설명한 것은?

- ① 현실에서의 사랑의 한계를 암시해준다.



- ② 두 주인공의 사별의 아픔을 심화시켜 준다.
- ③ 환유가 정인에게 들려 줄 말을 대신한 것이다.
- ④ 사건의 전개에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 ⑤ 시련 극복을 통한 더 큰 사랑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다.

④

095

㉠ 부분에 '정인'의 독백을 삽입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헛! 이게 뭐람..... 홀로 남겨진 자의 몸부림?'
- ② '마음이 허하니 몸이 견뎌 내지를 못하나 보다.'
- ③ '그이가 남기고 간 그림자가 이토록 깊은 거구나.'
- ④ '이런 때 환유 씨가 곁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 ⑤ '이제 그만 정신을 차려서 새롭게 걸음마를 해 보자!'

③

[096~10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만수 : 넌 버스 탔냐? 난 기차 타고 왔다. 저녁때 영등포역에 내렸는데 서울이라는 게 꼭 재 뿌려 놓 뒷간같이 온통 뿌엥더구먼. 그게 옛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나 됐어.

철수 : (유행가) 서울, 서울, 럭키 서울~. 야, 난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권투 도장에 찾아갔어. 나도 용주골에선 꼬마들 사이에 아라주는 주먹이었거든? 야, 내 처음 서울에 올라 와 가지고 종팔이 형님하고 운동할 때 명우 개 라면 끓이고 짱구는 걸레 빨았어. 너 잘 알지? 유명우, 장정구. 그 때 내 이 레프트에 안 떨어지는 애 없었거든? 그 때 내 별명이 공포의 왼빠 아니냐, 공포의 왼빠! 응? (권투 장면 마임)

만수 : 아, 예. 장질수 선수, 오소독소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잭 잭 레프트, 레프트 어퍼컷 다운! 다운됐습니다. 완, 투, 쓰리, 케이오! 케이오!! 아 예, 장철수 선수 참피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철수 : (헉헉거리며) 대통령 각하, 영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코치님, 경북상사문 사장님, 진지방정 사장님, 흥의 미술 학원 유 교수님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회 영민 회장님, 최친진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럴 줄 아냐? 그 때 관장이 이상했어. 날 밀었어야 돼.

만수 : 꿈깨라 꿈깨! 자식아.

EBS 300제 산문

칠수 : ㉠그래도 싸나이에겐 일생에 3번 기회가 온다니까 두고 봐!
난 꼭 잡을꺼야. 난 말야 이 뺑기쟁이가 적성에 안 맞아.

만수 : 그래 무슨 계획이래두 있나?

칠수 : 아직은 뭐라구 말 못하겠어. 하여튼 일단 때려칠 거야.

만수 : 잘될 놈은 따로 있는 거야. 개 꼬랑지, 3년 지나고 봐야 개 꼬랑지야.

칠수 : 마 너무 빨리 정신 차리구 직업 바꿔. 뺑기 속에 니 인생 처 박지 말구.

만수 : 이만한 직업두 없이. 이 도시 한복판에 그것두 이렇게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일하는 것두 우리 같은 촌놈들 출세한 거지. 이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누가 감시를 하니, 잔소리를 하니? 사장두 우리 보구 이 뺑기통을 특별히 맡기는 거니까 잘해 달라구 따루 불러서 부탁했잖아.

칠수 : 사장이 정말 심각해서 널 불러 달콤한 이야기 속삭이는 줄 아니? 다 지가 아쉬울 때 하는 소리야, 너 같은 쪼다한테 왜 아쉬운 소리 하겠나? ㉡하면 된다구? 하니가 되디? 쥐구멍에 별들 날 있다구? 별들어 봐야 쥐새끼들 눈이나 부셔. 칠전 팔기? 웃기지 마. 수환 이도 약하게 맞으니까 발뚧발뚧 일어섰지, 세계 맞아 봐라. 그러니까 너도 빨리 때려 쳐. 야, 만수야, 너 지금부터 달리기 해라. 유우는 내가 사줄게.

만수 : 야, 우리 은행이나 털까?

칠수 : 좋지. (함께) ‘칠수와 만수 깡!’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칠수 : 첫-첫-첫,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만수 : 뒤로 돌아, 대거리 박아. 너! 뒤로 돌아보지 마! <중략>

칠수 : 괜찮아, 너도 빨리 올라와. 여기서 보니까 경치 끝내준다. 아주 죽여 주는데. (만수 뺑기통 들고 조심스럽게 올라간다.)

만수 : 야, 다 올라 왔지? 여기가 꼭대기야.

칠수 : 야, 싸자 싸! (오줌 쏜다.)

칠수 : 시원하다. 저 밑에 있는 애들도 시원할 거야.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조명 어두워진 상태. 노을이 진다.) 야, 저 해죽 봐라.

만수 : 꼭 빨간 고추 날어는 멍석 꽃 같구나. / 칠수 : 좋다.

만수 : 수부리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서해 바다야. 바다라기 보다는 뻘이지. 다 저너 때 집 뒤 언덕에 올라가 보면 노을이 대단했어. 근데 저렇게 빨강지는 안있던 거 같애. <중략>

만수 : 정승 날 때 강아지도 나는 법이야. 밧줄 달고 내려 가 보면 장자, 사자, 판자가 다 내 응뎡이 이래야. 재네들 노는 거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가 까부는 놈은.

(칠수, 만수, 끄집어 내 뒤통기는 마임)

칠수 : 킬킬킬킬, 우리 저 아래 있는 새끼들한테 욕이나 한판 해 줄까? 아이! 서울에 계시는 시민 새끼들아 — (욕 노래와 함께 하는 도중, 만수 깡통을 찬다.) (두 사람 깡통의 행적을 계속 지켜보다가)

칠수 : 어떻게 된 거야? / 만수 : 사고 났다.

칠수 : 깡통 하나 떨어졌는데 왜 저 난리지?

만수 : 저기 급정거한 자가용에 맞았잖아. <중략>

기자 : 아무래도 50만원은 있어야겠다. 그년도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것이니까. 아 이년이 죽일 년이지. 50만원은 보내줘야 목숨은 살리겠다. 이상 박만수 모친의 편지였습니다. 박만수씨, 박만수씨, 우리가 수부리 이장님택에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어머니과 통화하시

겠습니까?

전문가 : 이봐요, 다신 정말 저 사람들 죽는 거 보려고 환장했소?

칠수 : 그만둬, 이 새끼야. / 전문가 : 나가란 말예요. 나가.

칠수 : 그만둬. 이 나쁜 놈들이.

전문가 : 저 사람들 감정을 생각해요. 만수씨, 칠수씨, 냉정하세요.

싫다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나가 나가라구.

기자 : 카메라 카메라 저 사람들 표정, 표정 좀 찍어요.

칠수 : 그만둬요. 그만둬요.

(대장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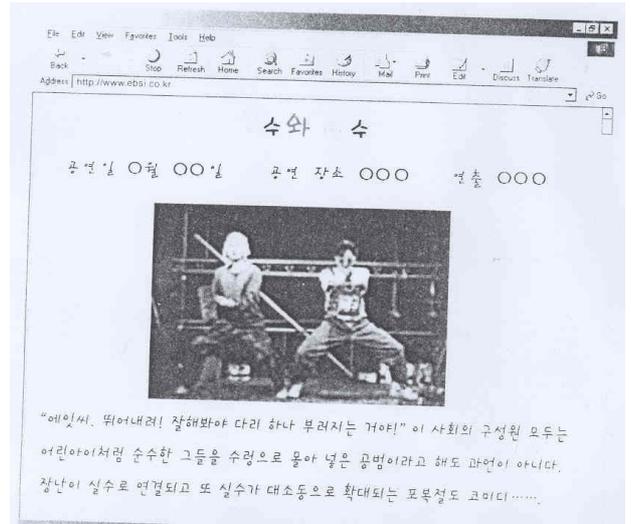
대장 :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소. 지금 도심 교통이 세 시간째 완전 마비되고 있소.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특공조 투입해서 마취총으로 해결하시오.

전문가 : 알았습니다. 지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칠수와 만수'

096

위 글을 바탕으로 만든 연극을 본 네티즌의 반응이다. 위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 ① 자신들의 삶과는 딴 세계인 세상을 향한 칠수와 만수의 배설 행위를 보면서 통쾌한 대리 만족을 느껴 보세요.
- ② 그들은 지쳐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고달픈 현실적 삶에 지쳐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프게 아른거린다.
- ③ 연극을 보면서 칠수의 말 때문에 실컷 웃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 행동이 비정한 방관자들과 다름없음을 깨닫는 순간 너무도 부끄러웠어요.
- ④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복중 터위에 질식할 것처럼 답답하던 폐인공의 삶……. 그러나 나에게도 한줄기 희망은 있다.
- ⑤ 현실과 사회의 꺾박과 소외에 저항하고자 칠수와 만수가 기어올라간 고층 빌딩의 철탑.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의로운 투쟁의 상징인 듯!

097

위 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BS 300제 산문

- ① 만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웬만큼 만족하고 있다.
- ② 칠수의 말 속에는 확인할 수 없는 허풍이 섞여 있다.
- ③ 칠수와 만수는 한 고향에서 성장한 죽마고우 관계이다.
- ④ 칠수와 만수는 서로 구박하면서도 마음이 잘 맞는 편이다.
- ⑤ 칠수와 만수의 말하는 품에서 배움이 짧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098

<보가>가 위 글의 극적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가정할 때, <보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 쭈뼛쭈뼛 훑날리는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음 /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 가에서는 /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 새 살이 되자.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① '바람 불고 춥고 어두운 세상' 은, 고층 빌딩에서 일하는 가난한 페인트공 칠수와 만수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표현한 말일 거야.
- ②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함박눈' 이나 '편지'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
- ③ 만수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 넉넉하지는 않지만 육친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던 고향 마을이야말로 '사람이 사는 마음 가장 낮은 곳' 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진실과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정적인 보도에 급급한 나머지 칠수와 만수를 궁지로 몰고 가는 '기자' 의 비인간적 태도야말로 '진눈깨비' 같은 존재야.
- ⑤ '깊고 붉은 상처' 는, 우연히 저지를 실수를 실수 그 자체로 인정해 주지 않는 냉혹한 세대에 떠밀려 가는 칠수와 만수의 소외된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③

099

'칠수' 가 ㉠에 이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들 / 왜 불러 왜 불러 토라질 땀 무정하더니 / 자꾸자꾸 불러 설레게 해 / 아니 안 되지 돌아서서는 안 되지 - 송창식, '왜 불러'
- ②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아이이야이야들아 내 말쯤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 판친다 - 신신애, '세상은 요지경'
- ③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말천인데 / 제제하게 굴지말고 가슴을 짝 퍼라 /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전인권, '사노라면'
- ④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 열차에 몸을 실었다 /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 추억이 나를 울리네 - 송대관, '차표 한 장'

- 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료 /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 이 내 몸이 돌이 되도 내 마음은 영원히라 - 서유석, '가는 세월'

③

100

<보가>에서 '기령' 이 ㉡에서와 같은 어투로 말한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기령 : 야야, 그렇게 짜게 굴지 말고 밥 한 번 사라.
 승혜 : 한 폰이라도 더 모아서 내 힘으로 노트북을 장만할 거야.
 기령 : 음, 티끌 모아 태산이라.....

- ① 앓느니 죽지..... 그 밥 내가 사고 말아야지.
 - ② 정말 비늘로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 ③ 그게 가능할까? 바람 한번 불면 나 날아갈 텐데.
 - ④ 목표를 정해 매진하기만 한다면 뭐든 못하겠나.
 - ⑤ 너무 그러지 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
- ③